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5월 29일 수요일 (주간) 제 371 호

봉사하는 불교 실상선원 02)745-8503 011)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실상선원 041)734-2680 천혹사 대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법석 조대 **덕해 스님** 불교인양원 이사장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깥세상이 아니라 바로 자기 속의 '나'입니다. 나를 위한다는 마음을 벗으면 아무 것도 걸릴 것이 없습니다."

"수행을 해도 번뇌에 사로잡혀 있으면 수행이 아니요, 사소한 일을 해도 정신을 통일하면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8·9면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박교수의 한국불교 비판

"중생을 위하기보다 참선에만 몰두하는 스님과 기복적 신앙에만 매달리는 속인들 사이의 유일한 연결고리는, 기복적 의례와 불전(佛錢)의 헌납인 것 같다."

귀화 러시아인으로 한국사회에 고언을 아끼지 않고 있는 박노자 교수(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의 이런 한국불교 비판을 둘러싸고,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박 교수는 최근 발간된 격월간 〈참여불교〉(5~6월호)



에 기고한 '하화중생(下化衆生)이 없는 한국 선(禪)'이라는 글에서 "한국불교는 참선을 통한 깨달음만 얻어진다면 사음(邪淫)이나 음주를 쉽게 용서하는 이완된 지계의식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보시금의 용도가 투명해지고, 철저히 사회적 용도로만 사용돼야 한다며 박 교수의 지적에 전폭적 공감을 나타냈다. 반면 어떤 불자들은 박 교수의 애정어린 비판은 인정하면서도, 한국불교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한 느낌이 있다며 한국불교 전체에 대한 균형있는 이해를 주문하기도 했다.

해인사 원철스님은 "자타불이(自他不二)의 불교정신으로 볼 때 사회봉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그러한 보시는 수행을 위한 것이지, 사회봉사 그 자체가 불교의 목적일 수는 없다"며,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중시하는 불교의 본질을 비켜간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박 교수의 애정 어린 충고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한국불교계가 자신 있게 박 교수의 지적이 모두 현실과 다르다고 반박할 수 있을 만큼 중생의 고(苦)와 함께 해왔느냐는 것이다. 자리(自利)와 이타행(利他行)을 겸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불교도 뒤늦게나마 사회복지와 포교 등 하화중생을 위한 봉사에 힘을 쏟기 시작했지 않느냐는 것이다.

박 교수가 비록 이런 변화의 움직임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해외불교를 조망하고 있는 제3자의 시각에서 한국불교를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참고할 가치가 있다. 이제는 한국불교도 이웃과 사회, 나아가 세계를 구제하는 대승불교의 진면목을 보일 때다.

김재경(취재1부 차장)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불교사이트 유료화

1.불교전문 사이트의 일부 콘텐츠를 유료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해야 한다 ②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해야한다
③시기상조다 ④해서는 안된다

2.불교전문사이트의 유료 콘텐츠를 이용할 생각은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설문 참여: 5월 30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72호 9면에 싣습니다.

경부고속철 환경평가 '부실'

천연기념물 등 보호 동·식물 터널공사영향 누락

이병인 교수 '금정산·천성산 통과 반대' 토론회서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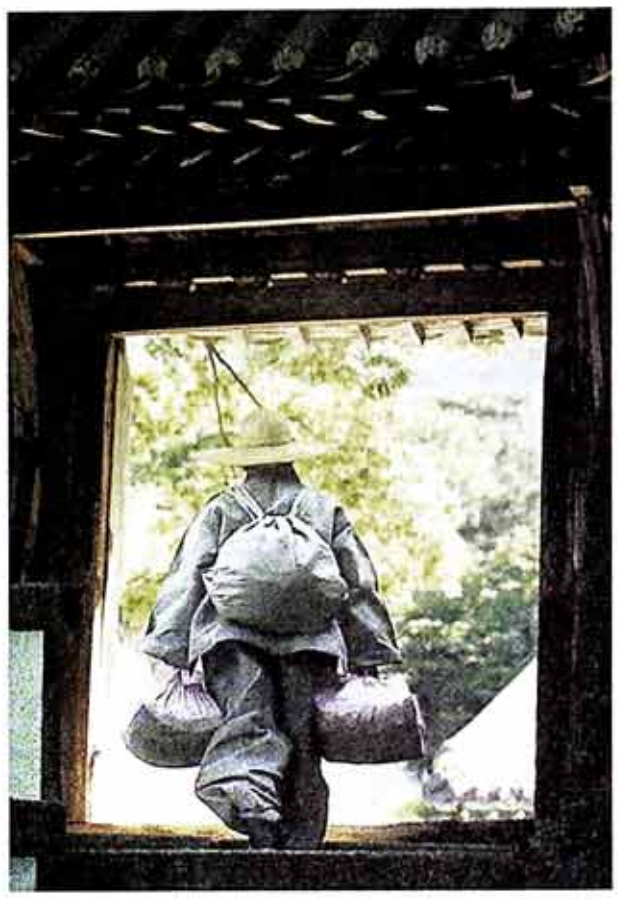
경부고속철도 부산 - 경남권 건설사업에 대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부실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면죄부를 준 평가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부산일보사 강당에서 열린 경부고속철도 금정산 - 천성산 통과 반대를 위한 1차 토론회에서 이병인 밀양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93년부터 조사가 실시돼 94년 최종 제출된 부산경남구간의 환경영향평가서 자료는 자연생태계분야에서 기존 자료와 차이가 현저하다"고 지적했다. '금정산 - 천성산 경부고속철도 통과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이라는 이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전체적인 동식물의 종수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지정한 희귀동식물의 존재 조차 언급되지 않았다"며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참매와 보호종인 수리부엉이, 붉은 배새매 등 50여종의 보호동식물과 습지식물 64과 219종을 비롯 200여과 800여종의 식물이 누락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 - 경남 75㎞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가운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56.6%에 달하는 42.4㎞의 터널구간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98년 울산 무제치늪이 국가생태계보전지역으로, 2002년 천성산 화엄늪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에 대한 재평가는 전혀 고려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가 개발부서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밖에도 생태적, 지하수 및 지질학적, 문화적 영향에 대한 신뢰할만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환경영향 및 평가가 수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충분한 조사를 통한 검증이 있기 전에는 사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정산 고속철도 통과반대 시민종교대책위원회와 금정산 - 천성산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합세영 부산대 지구환경시스템부 교수도 '고속전철터널의 금정산 - 천성산 통과에 따른 지하수 및 지질학적 영향과 문제점'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터널관통으로 대량의 지하수가 누출되어 지하수 고갈, 동래온천수 고갈, 습지 등 생태계 파괴의 우려가 높다"며 이병인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천미희 기자 mincheon@buddhapa.com



"깨달음 위한 쉼없는 정진을" 깨달음을 얻기위한 용맹정진이 시작됐다. <사분율(四分律)>에서 부처님은 사문들에게 "지금부터 여름 석 달 동안은 안거를 하라"고 말씀했다. 하안거 결제 이틀전인 24일, 정각 성취를 서원하고 '문없는 문'을 뚫기 위해 한 납자가 북한산 망월사 천중 선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망월사=고영배기자

제8차 국제여성불교대회

2004년 서울서 열린다

제8차 국제여성불교대회가 오는 2004년 서울에서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우) 주관으로 열린다.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우스님은 24일 국제불교여성협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Women), 일명 '붓다의 딸'(Sakyadhita) 회장 렉세 포모 스님으로부터 제8차 대회를 한국에서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1~18일 대만 타이베이 화범대학에서 '선여인(善女人)-세계의 교량'을 주제로 열리는 제7차 국제불교여성대회에 중앙승가대 비구니연구소장 본각스님과 비구니회 사회국장 담교스님 등 대표단(40명 내외)이 참석, 수락 연설을 할 예정이다.

세계 각국의 여성 불교학자와 수행자, 사회운동가들이 다양한 현대사회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2004년 서울 국제불교여성대회는 한국 비구니 승단의 존재를 세계에 알리고, 그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7차 대회의 소주제는 △세계의 불교 여성에 대한 이해 △대만 불교계의 여성에 대한 이해 △불교 전통간의 대화 △수행과 일상의 실천 △상호이해와 중생구제 △전통과 현대 등이다.

김재경 기자 gkm@buddhapa.com

'성공 월드컵' 불교도 적극 협력

정대스님 등 교계지도자 "인류화합·평화 정착 계기 삼자"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한국불교종단협 회장)을 비롯 불교 대표종단 총무원장 스님들과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연합회장, 중앙신도회장 등 불교계 지도자들은 31일 개막되는 월드컵의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이를 계기로 세계 인류화합과 평화가 정착되기를 발원했다.

정대스님은 21일 "인류최대의 축제이자 국가적 대사인 월드컵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불교도들이 적극 협력하여 이 대회가 화합과 평화의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대스님은 또 "월드컵 기간만이라도 서로 다툼이 없이 성공적인 월드컵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여야가 손을 잡고 대화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25일 "월드컵은 세계인이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지켜보는 범세계적 평화제전이기에 우리나라가 성숙된 국민성을 발휘한다면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장점을 알리고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 같다"면서 "월드컵이라는 대 행사도 인간의 바르고 청정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야 결과도 좋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은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가게 되길 모든 국민들이 지금 한마음으로 기원하고 있다"며 "이렇게 단합된 한마음이 흐트러지지 말고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되어 국운융창과 국가발전의 밑받침이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진각종 효암 통리원장은 "한마음으로 참여하고 화합하고 실천한다면 이번 대회는 역대 월드컵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기록될 것인 만큼 모든 진각종 교도들은 성공적 대회 개최와 한국불교를 알리는데 진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연합회장 법장스님(수덕사 주지)도 25일 "세계적인 축제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돼 참으로 기쁘다. 이번 월드컵은 세계속에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최고의 호기"라며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내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한국의 전통과 문화와 예절을 알려 한국의 진솔한 모습으로 외국인을 대하고,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문화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고 말했다.

☞ 2면으로 이어짐

해인사 등 6대 총림·각 선원 하안거 결제

1800여 납자 석달간 참선 정진

해인사 송광사 수덕사 통도사 백양사 선암사 등 6대 총림을 비롯 전국의 각 선원은 26일 입오년 하안거 결제식을 갖고 3개월 동안의 참선정진에 들어갔다.

이번 하안거에는 총림선원 6곳, 비구선원 50여곳, 비구니선원 30여곳, 하와이 무량사 태평선원 등에서 1800여 납자들이 방부를 들였다.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은 결제법어를 통해 "'주인이란 구름이 정수리를 덮음이요 손님이란 백설이 눈썹을 덮는 것이로다. 서로의 거리란 문지기의 권한에 한계가 있는 것이요, 손님과 주인의 이야기란 옥소리 금소리로구나.'라고 설한 천동 정각 선사의 글귀가 옛 선지식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라며 수행 정진을 독려했다.

☞ 총림 방장 법어 3면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a.com

초파일 휴가로 이번호 16면 발행

불교계 최초 교육인적자원부 인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개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불교와 사회복지 · 상담심리 등 관련분야의 학문을 연구하고 교수하는 전문대학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혜와 자비로서 개인적으로는 인격을 완성하고 사회 국가적으로는 불국토를 건설하는 사상입니다. 따라서 본교는 지혜의 계발과 자비심의 함양을 교육의 지표로 삼고, 민족과 인류사회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 양성을 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석사과정 · 연구과정 학생모집

국내 유일의 불교전문대학원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9월 1일 개교합니다.

I. 모집 학과 및 인원
1. 모집학과 : 불교학과 · 상담심리학과 · 사회복지학과 2. 모집인원 : 석사과정 - 50명, 연구과정 - 약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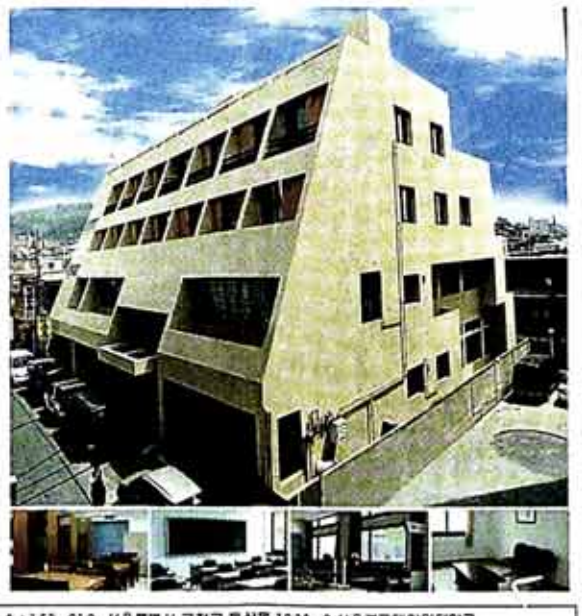
II. 지원자격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출신학과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III. 전형일정
1. 원서교부 및 접수 : 5. 20 (월) ~ 6. 05 (수) (www.sgsb.ac.kr)
2. 전형일시 : 6. 8 (토) 10 : 00 3.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
※ 입학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가능

IV. 특 전
1. 성적우수자 및 모범학생 등록금 전액 또는 반액 장학금 지급
2. 상임연구원 선발 각종 혜택 부여 3. 우수 졸업생 해외유학지원 가능
4. 성적이 우수하고 인품이 훌륭한 교사자격증 소지자는 학교법인 보문학원 산하 각급 학교 교사 또는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산하 각 사찰 법사로 채용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시거나 본교 홈페이지(www.sgsb.ac.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석사과정 · 연구과정 외에 특별과정, 사회교육원도 운영 함.

본 대학원대학교의 운영재원으로는 학교법인 보문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 재산에서 조성되는 수익금 이외에도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 영각당(납골당)에서 조성되는 수익금이 있습니다.



서류제출 및 문의 • 전 화 : (02)808-3321, 6582, 6584, 6585 Fax (02)808-6581 • 주 소 : 153-0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8-2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회원 모집

안양 보장사 영각당(납골당)

안양유원지 입구에 위치하여 서울에서 가장 가깝고 최고의 시설과 높은 신뢰를 자랑하는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가 납골당을 준공하여 회원을 모집합니다. (전철 1호선 관악역 도보 10분)



(장례에서 납골 · 49재까지 완벽한 서비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는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교육부 인가 전문대학원) · 보문중, 고등학교(대전) · 안양시노인복지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자체주차장과 공영주차장 600대 주차가능)

031-471-3322, 02-808-3321 www.bojangsa.co.kr

※ 영각당(납골당)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전액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보문중 · 고등학교(대전), 안양시노인복지센터의 운영비로 사용될 것입니다.

사 설

'週5일 근무제' 포교의 好機

7월부터 은행들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키로 했다. 앞으로 이 새 제도가 어떤 효과를 거두게 될지는 일차로 노사 양측의 노력여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현재로선 '우려 속에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금융단 노사양측의 주5일 근무제합의는 국민에게 새로운 여가활용과 소비문화 창조 등에 새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더욱이 지난 1.4분기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높은 5.7%에 달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 결정된 것이어서 시행 첫해부터 국민의 마음을 들뜨게 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면도 없지 않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주5일 근무제의 조기정착과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해선 우리 불교의 역할이 지대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사찰을 찾는 국민에게 그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책을 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과거처럼 사찰 방문객을 단순한 관광객 또는 소풍객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문화와 조상들의 모습을 배우고 익히는 공간 등으로 활용토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재충전의 기회가 되는 등 실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주5일 근무제 시행은 우리 불교가 수용해야 할 새로운 도전이며 기회임이 틀림없다. 새롭게 전개될 변화에 능동적이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국민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면서 사찰본연의 임무를 다하여 포교의 호기로 활용하게 되길 바란다.

월드컵, 우리 문화 성찰 계기로

외국에 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문화적 차이, 특히 언어소통의 문제가 '개별자'로 하여금 '한국인'임을 몸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렇듯 문화란 물고기에게서 물과 같다. 그러나 같은 물이라 할지라도 민물이냐 바닷물이냐에 따라 사는 고기가 달라진다.

민물과 바닷물의 차이, 문화의 차이란 그런 것이기도 하다. 아무리 이질적인 문화라 하더라도 '인류'라는 이름 앞에서 보편적 속성을 가지며, 자연적·역사적 차이에 따라 특수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월드컵 열기로 온 나라가 뜨겁다. 조그마한 공 하나가 세계인을 한국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축구를 좋아하는 인류 보편의 속성이, 한국의 고유성을 세계에 펼쳐 보이고 한국인 스스로 한국 문화의 특수성을 자각케 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네 삶의 양식 대부분이 서구화됐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서라도 '우리 것'에 대한 자각은 중요하다. 물론 국수적 태도의 우리 것 강조는 경계해야 하지만, 진정한 우리다움과 가꾸고 다듬어야 할 가치를 확인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경주·대구·광주 등 10개 국립박물관의 〈일본 미술 명품전〉·〈신라의 금동불〉·〈한국 전통 복식 2000년〉·〈남도 명품전〉 등 기획전은 각별한 주목을 요한다.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세계인의 눈에 우리 것을 보여 주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고, 우리 스스로 우리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살피는 일도 중요하다. 특히, 월드컵이 마련해 준 세계적 '멍석'은 '보편과 특수'라는 문화의 두 가지 속성 모두를 체감하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주 필 : 김병규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l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법랍 20년이상 스님 재교육

6월 12~14, 19~21일, 조계종 정례화 예정

화성 신흥사서

조계종이 법랍 20년 이상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개최하는 등 종단 스님 재교육에 적극 나선다.

교육원(원장 무비)은 6월 12~14일과 19~21일 경기도 화성 신흥사에서 고급지도자과정 및 중진지도자과정 연수를 각각 개최한다.

이번 두 차례의 연수회는 지도자급 스님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종단차원의 첫 연수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이 두 연수회는 지난 4월 열렸던 수련회 사찰 소임자 연수와 6월말~7월로 예정돼 있는 관람료사찰 주지연수 등 종단이 처음 실시하는 연수와 함께 본말사주지연수와 전법인력양성교육, 전산교육 등을 포함한 조계종단의 스님 재교육 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랍 20년 이상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제1회 고급 지도자과정 연수'는 교육원장 무비스님의 '불교지도자의 사명과 자세' 특강을 시작으로 불교지도자론·환경 및 생태활동·경영혁신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강의로 진행된다.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1회 중진 지도자과정 연수'는 법랍 25년 이상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열리며, 프로그램은 고급 지도자과정 연수와 같다. 연수를 이수한 스님 중 현직 사찰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본말사 주지연수 의무사항이 면제되며, 각종 교역직 종무원 및 교계단체 관리자에 취임하였을 때 관리기능에 필요한 지원도 받게 된다.

교육원은 교육의 질을 위해 이번 연수회의 인원을 40명 내외로 제한하는 한편, 올해 연수를 받지 못하는 스님들을 위해 연수회를 매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각계인사 1만명 북한산 살리기 선언

"정부는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건설을 백지화하고, 민관합동기구를 마련해 우회노선을 수립하라"

22일 종로성당에서 열린 '북한산 살리기 1만인' 선언식에 참석한 각계인사 200여명은 "도로건설 등 교통정책을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가운데 일면스님(북한산 관통도로 저지를 위한 시민종교연대 공동대표)과 왼쪽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사진=환경운동연합 제공

사찰수련 정보센터 상설 운영

주5일근무 본격화대비, 프로그램 개발·홍보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스님)이 수련법회 정보센터를 상설화하는 등 사찰 수행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 나섰다.

포교원은 오는 7월부터 은행권이 주5일 근무제를 전격 실시하기로 하는 등 주5일 근무제의 본격 시행에 따른 사회, 문화적인 환경 및 생활변화에 발맞춰 사찰 수련법회를 신행풍토 조성 및 대중 포교의 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아래, 6월 12일부터 사찰 수련법회 정보센터 운영에 들어간다.

포교원은 이를 위해 6월 5일까지 각 사찰로부터 수련법회 운영기획서 등을 접수받는 한편, 온라인 수련법회 정보센터(www.pogyo.org) 상설화 및 온라인 상담, 수련법회 프로그램 연구및 보급, 수련법회 안내 자료집 및 리플렛(1만부) 제작 등에 나서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템플스테이 적극 홍보나서

영문판안내서 1만·리플렛 30만부 배포

외국인들이 사찰에 머물며 한국불교 체험을 하는 템플스테이가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40일간의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한국불교전통문화체험사업단(단장 도영스님)이 템플스테이 참가자 안내서(영문판) 1만부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사업단은 월드컵 기간에 한국을 찾는 외국인을 상대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리플렛 30만부와 4종의 참가자 안내서 및 운영자 지침서를 제작, 24일부터 배포에 들어갔다.

한국전통문화와 한국불교에 대한 종단차원의 대대적 번역사업의 결과물로 평가되는 이 안내 책자들은 외국 주재 20여 한국관광공사 지사와 각국 대사관, 33개 운영 사찰, 전국 관광안내소, 호텔, 여행사, 공항 등에 배포된다.

한편 사업단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간 김천 직지사에서 개최한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외국대사와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외국인들이 가장 흥미롭게 느낀 것은 '참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참선 다음으로 흥미를 느낀 프로그램으로는 발우공양과 탁본, 예불, 다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외국인들이 체험 중 불편하게 느낀 점은 재래식 화장실과 딱딱한 베개, 잠잘 때의 온도 등이었다고 답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1면 '성공 월드컵'에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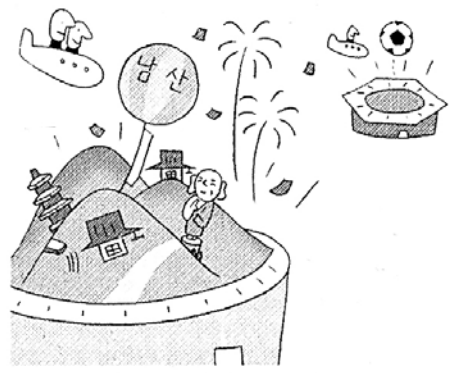
전국비구니회장 광우스님은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불자들이 앞장서 자원봉사도 하면서 국가적인 대사를 도와야 한다"며 "아울러 사찰불교문화 체험 등의 행사를 잘 치르고,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 비구니승단의 존재를 알리는 등 국제포교의 새로운 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창기 조계종 중앙신도회장도 "월드컵을 세계인류의 축제이자 우리 겨레가 화합과 상생의 시대로 나아가기위해 국운융성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또 "2천만 불자모두가 화해와 협력을 선도하여 인류화합의 대축제를 원만하게 회향할 수 있도록 '나도 대표선수'라는 주인된 참여의식이 필요하고 민족전통문화의 계승자로서 오천년의 전통문화를 세계 속에 널리 알리고 문화민족으로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심으로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현대' 만평 김 영 민



경주 남산에도 관심을…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은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금주산 금용사 관세음보살님 화현 32주년 기념 정진 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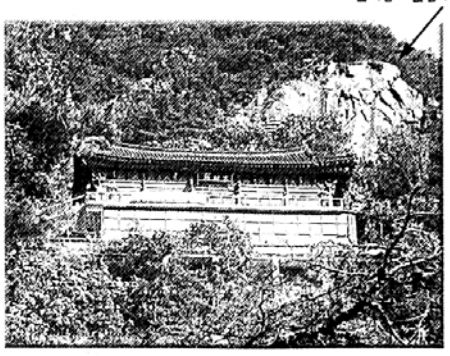
귀의 삼보하옵니다.

포천 금주산 금용사가 22년간 법정토지 분쟁으로 인하여 부처님의 도량으로서 역할도 하지 못하였을뿐만아니라 찾아오시는 여러불자님들께도 그동안 누를 끼친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법정분쟁으로 인하여 기도드리러 오셨다 그냥 가신 불자님들께 거듭 사과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다행히 부처님 가피력으로 법정토지분쟁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부대중이 함께 할 수 있는 도량으로 거듭나고자 32년전 관세음보살님께서 화현하신 금주산 금룡사에서 특별 정진 기도 법회를 봉행 하고저 합니다. 아울러 인류의 가난, 병고, 전쟁을 소멸하기 위한 기도정진을 할 예정이오니 공사다망 하시더라도 무루 동참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일 시 : 2546년(2002년) 6월 9일(음 4월 29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 소 : 경기도 포천 금용사
▶문 의 : 031-533-4405, 4425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금주리 25-8 금용사



관세음보살님 화현바위



- 금용사에 화현하신 관세음보살님 -

1970년 칠석 다음날인 음력 7월 8일 이었다. 칠석기도 이후 당시 100일기도를 하고 있었던 8명의 불자님들과 주지스님은 뜻밤의 광경에 넋을 놓고 백련을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저녁 9시 -9시 30분 동안 금용사 백련에 관세음보살님과 남순동자께서 화현 하신것이었다. 자비로운 미소를 띠며 바라보는 관음보살님에 한없이 절을 한지 30분, 서서히 극락세방정토로 떠나시는지 소리없이 가셨다 이후 금용사에서는 해마다 7월8일 관음기도재일로 정해 당시 친견하신 불자님들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정진기도를 올리고 있다.



조계종 종정이며 해인총림 방장 법전스님을 비롯한 조계총림 덕숭총림 영축총림 방장과 태고총림 선원장 스님은 26일 임오년 하안거 결제 법어를 통해 "모든 것이 인과임을 믿고 산공부를 해야 한다"며 "자기 마음이 참 부처인줄 알아야 한다"고 설했다.

해인총림 법전, 조계총림 보성, 덕숭총림 원담, 영축총림 월하, 태고총림 지허 스님의 임오년 하안거 결제 법어를 간추렸다.

임오년 하안거 결제 법어

"자기 마음이 참부처입니다"

청산이 백운을 덮었느니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



(상략)

선문(禪門)에서는 백운을 자유자재(自由自在)로 오고가면서 집착하지 않고 걸림이 없는 수행자에게 비유합니다. 하지만 겉모양만 머물러 있다고 모두가 청산이요, 자유롭게 걸림없이 나다닌다고 해서 백운인 것은 아닙니다. 몸은 머물러 있지만 마음에 집착이 없는 사람은 몸은 비록 청산이지만 마음은 백운인 것입니다. 몸은 걸릴 것 없이 다니지만 마음이 어느 한 곳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몸은 백운 속에 머물러 있겠지만 마음은 청산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느 때건 백운이 될 수도 있고 청산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운과 청산은 늘 함께 연기관계인 중도를 이루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중략)

주인이란 구름이 정수리를 덮음이요, 손님이란 백설이 눈섭을 덮는 것이로다. (중략)

서로의 거리란 문지기의 권한에 한계가 있는 것이요, 손님과 주인의 이야기란 옥소리 금소리로구나.

그렇다면 이 산승이 시회결제대중에게 묻겠습니다. 천동 정각 선사의 이 네 글귀가 옛 선지식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총림에서 결제를 하려 온 눈푸른 납자들은 이 한 철 동안 잘 가려보시길 바랍니다.

억(喝)!

動과 靜이 모두 인과임을 믿어야

조계총림 방장 **보성스님**



(상략)

임란 때 사명스님이 왕명을 받들고 강화사절이 되어 일본을 건너 갈 때 동래부사가 병을 핑계로 전송하지 않았고 강화책임을 완수하고 돌아 올 때도 동래부사는 여전히 병을 핑계로 영접하지 않자 참수로 벌하였다. 스님께서는 말년에 해인사 홍제암에서 요양할 때 의사를 불러 치료를 받는데 침이 혈에 꼽히는 순간에 독침임을 감지하고 내 허락없이 침을 빼지 말라고 한 뒤 대중을 불러놓고 나는 지금 독침을 맞고 있으니 침을 뺌과 동시에 목숨이 끝날 것이다. 내가 동래부사를 참한 인과를 오늘 갚는 것이니 내가 죽은 뒤에 의사를 벌하지 말라고 했다하니 이는 바로 인과에 기꺼이 순종한 것이다. 인과는 범부와 성인이 똑같이 받지만 범부는 인과에 속아 살고 성인은 인과에 속지 않는 것이 다를 뿐이다.

금일대중은 인과에 속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원포자귀청장후(猿抱子歸青嶂後)하고, 조함화락벽암전(鳥啣花落碧巖前)이로다

원숭이가 새끼를 안고 푸른 산 뒤로 가고, 새가 꽃을 물고 푸른 바위 앞으로 내려오네

금일대중은 一動一靜(일동일정)이 모두 인과임을 깊이 믿고 일하는 것과 공부가 둘이 아닌 산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하략)

중생과 佛이 본래 한 몸

덕숭총림 방장 **원담스님**



역대조사시하불(歷代祖師是何佛)
개시허망망시불(皆是虛妄妄是佛)
생불원시동일체(生佛原是同一體)
이망념자박자승(以妄念自縛自繩)

역대 조사 어떤 것이 부처이냐, 모두 허망하여 허황된 것이 부처이니라
중생과 불이 원래 한 몸인데, 망념으로써 스스로 얽어 묶네

어느 때인가, 유점사의 오십삼불을 모신 법당에서 많은 대중이 모인 중에 만공 조실스님께서 "부처님이 쉰 세분이나 되는데 어느 부처님이 주인불(主人佛)인고?" 하고 물으셨다. 한 납자가 팔을 들어 한 복판의 부처님을 가리키자 조실스님께서 "손 없는 사람은 못 가리키겠다"하시자, 납자는 "손으로 가리킨 바는 없습니다." 하니 조실스님께서 "그러면 무엇으로 가리켰단 말인고!"하시니 이에 납자는 다시 팔을 들어 손가락으로 가리킴에 조실스님께서는 "남의 흉내 내지마라"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대중들은 일러라. 어떤 것이 주인불 인고?

이 마음은 본래 청정하여 가히 취할 수 있거니와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마음이 참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이 참법인 줄 알지 못하여 만일 마음 밖에 부처가 있다거나 성품 밖에 법이 있다, 하면서 이 생각을 굳게 집착하여 불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비록 미진겁을 지낸다 하여도 어려울 것이니라.

강월조요송풍취(江月照曜松風吹)
영야청소하소위(永夜淸宵何所爲)
사방회고무멱처(四方回顧無覓處)
폐목함묵즉시불(閉目緘默卽是佛)

강 위에 달 밝고 솔바람 맑으니, 고요한 밤 맑은 하늘 아래 무엇을 할꼬.
사방을 돌아 봐도 찾을 곳 없더니, 눈 감고 함묵함이 부처라네.

돌(咄)!

나무 고래가 바닷물 마시니…

영축총림 방장 **월하스님**



(상략) 분명하고 쓸쓸하며, 산뜻하고 텅 비었도다.

(중략) 과거의 부처도 이렇게 살았고, 현재의 부처도 이렇게 살고 있으며 미래의 부처도 이렇게 살 것이니, 산승이 부르는 이 노래도 이미 잠꼬댄데 사부대중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즐고 있는가?

(중략) 활을 하고 한방망이에 바로 형세가 드러나니 제방의 노유가 서로 법거량하나 영축산길서 노래하는 자만이 예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구나.

(중략) 선원대중은 오늘 결제를 하니 당장 무심으로 묵연히 계합할 뿐이요, 마음으로 헤아리면, 곧 어긋난다. 만약에 한 생각도 없다 해도 그것도 경계이니 망령된 마음을 스스로 없게 한다면 더 이상 쫓아가 찾을 것이 없을 것이다. 곳곳마다 모두 원만하고 여러 만물이 낱낱이 부처이니라.

목경음해수(木鯨飮海水) 노출해저산(露出海底山) 나무 고래가 바닷물을 마시니 바다 밑의 산이 드러나는구나.

법어전문 buddhanews.com

몸 편하니 곳곳이 내집일세

태고총림 중앙선원장 **지허스님**



백운운리청산중(白雲雲裏靑山重)
청산산중백운다(靑山山中白雲多)
일여운산장작반(日與雲山長作伴)
안신무처부위가(安身無處不爲家)

흰구름 깊은 속에 푸른 산이 첩첩하고, 푸른산 깊은 속에 흰 구름만 많다네
날마다 구름과 산이 내 친구된지 오래라, 몸마저 편안하니 곳곳마다 내 집일세.

이 송(頌)은 종조 태고화상(太古和尙)께서 깊은 산속에 수행하시면서 하늘에 떠서 정처없이 흐르는 흰구름을 보시고 무심코 혼자하신 말씀이십니다. 본래 처음 발심해서 화두드는 날이 결제요 화두를 타파하여 확철대오 하는 날이 해제날 이겠으나 준봉을 오르메 가파르기만 하면 오르는 사람이 지난(至難)하므로 도리어 해태(懈怠)를 일으켜 퇴전할까 염려되어 간간이 평지를 두거나, 얼마간 내리막길을 두었다 오르는 것 같습니다. (중략)

천하의 모든 납자들이여! 결제대중들이여! 옛날에는 대지가 타들어 가서 천지만물이 말라 죽고 무수한 인명이 굶어 죽는 가난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난을 일컬어 송곳꽂을 땅도 없다 하는 원천 가난입니다. 이 원천 가난에 이르렀어도 최상승선 중에 여래선 밖에 안된다 하니 어떻게 해야 무릇 조사선이 되겠습니까? (하략)

"율원설립 총림寺格 갖출터"

화엄사 주지 선출된 명섭스님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는 17일 적묵당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신임 주지에 명섭 스님(곡성 태안사 주지)을 선출했다. 명섭 스님은 1964년 도천스님을 은사로 득도하여, 70년 범어사에서 고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화엄사 총무, 제9대 중앙종회의원, 천은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처음으로 본사주지 소임을 맡으셨는데.

"모범적인 본사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공부하는 많은 스님들이 수행공간에서 깨달음을 얻어 중생교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을 할 생각이다."

◆화엄사 발전을 위한 구상은.

"100평 규모의 화엄사 선등선원이 개원하여 26일 하안거 정진에 들어갔다. 앞으로 율원을 설립하여 삼보사찰에 버금가는 화엄총림의 사격을 갖춰 나가겠다. 그래서 남도 최고 선교양종 본찰을 목표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서울 대구 광주 등 대도시에 각각 포교당을 설립해 포교에도 적극 나서겠다."

◆호남불교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는 평을 듣는데 활성화 방안이 있으시다면.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 구례 곡성 여수 여천 지역 등 교구 내에 장애인, 무료 양로원, 고아원등 복지시설을 설립하고, 1지역 1유치원의 원칙을 마련, 어린이 포교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 불교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포교가 있어야 한다. 또 주 5일근무제를 대비하여 화엄사내에 영상과 강의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종합연수시설도 지을 예정이다. 종합연수시설은 다양한 지역행사를 사찰로 유치하는 효과와 함께 도시민 대상의 정기적인 수련회를 개최하여 무종교인까지 포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스님께서는 5년 전 관람료사찰 자율화에 앞장서신 것으로 알고 있다. 말사인 천은사 관람료 합동징수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시민단체의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의 측면이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환경을 보존하고, 시설보수를 위한 관람료 징수는 정당화되고 있다. 관람료는 사찰의 수입이 아니라 문화재 보존 및 보수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관람료 사찰에서도 관람자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징수액의 30%를 사찰보수 및 승가교육 기금 등으로 예치하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우리나라도 주 5일근무제를 실시키로 하는 등 관광레저문화가 사회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종단에서도 문화재사찰 주지 및 책임자를 위한 연수를 마련하여 행정과 문화재보호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선교양종 본찰목표 마스터플랜 추진

문중화합 바탕 포교·복지시설 확충

명섭스님은 무엇보다 문중화합을 강조했다. 스님은 "화엄사도 400여명의 재적스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때만이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며 "문중화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승려위계질서 확립"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본사가 확실한 위상을 갖춰나가면 지역이미지 제고로 이어져 지역불교 발전은 저절로 이뤄질것"이라면서 "화엄사가 여러 불사를 원만히 회향하고, 불교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종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한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 지었다.

김원우 기자

삼보사이버불교대학 탄생

1700년의 불교문화를 선도할 최초의 전문직 포교사대학 !

비영리 종교법인인 대한불교삼보회(삼보법회)가 순수 재가불교 신행단체로서 40여년의 역사와 함께 삼보의 혜명을 받들어 불교대중화를 선도할 사이버불교대학 학생을 모집합니다.

시간은 자유!
지역과 공간도 자유!
삼보사이버불교대학에서
진정한 삶의 행복을 만나 보십시요.

삼보사이버불교대학 특징

◇ 학생. 직장인. 주부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열린대학
◇ 종교적 권위를 지닌 전문자격증을 부여하는 대학
◇ 온라인, 오프라인 장점을 도입한 이론과 실습 중심의 교육
◇ 기존 오프라인 대학 1/2 ~ 1/3 수준의 비용과 시간절약
◇ 자격증 취득 후 전문직 포교사로 활동(학칙에 준하여 유급직 가능)
◇ 비영리 법인으로 수입 전액 포교사 활동 및 대학발전에 투자

삼보사이버불교대학 교수진

◇ 정병조 교수, 권탄준 교수, 성본스님(동국대), 윤이흠 교수(서울대),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 김재성 외래교수(위덕대) 외 2명

삼보사이버불교대학 제1기 포교사 모집 공고

1. 교육과정 및 기본전형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육기간	교육방법	지원자격 및 입학신청 기타사항
일반포교사	온라인 : 1년 오프라인 : 6개월	● 인터넷 자율교육 ● 법회,의식 자율교육	● 홈페이지 참조 ● 온라인으로 등록 및 신청	● 졸업장 수여(1년 과정) ● 전문직 포교사로 활동(학칙에 준하여 유급직 가능) ● 전문포교사증 수여(1년6개월 과정)
장의포교사	상 동	상 동	상 동	● 졸업장 수여(1년) ● 전문직 포교사로 활동 ● 전문포교사증 수여(1년6개월 과정) ● 장의사업관련 불교정보지원
군종포교사	온라인 : 6개월	인터넷 자율교육	상 동	● 수료증 수여(6개월) ● 제대 후 전문 포교사 과정 등록시 경력 인정 ● 군 입대 후 군종병으로 추천
유아(복지) 포교사	상 동	상 동	상 동	● 수료증 수여(6개월 과정) ● 전문 포교사 과정 등록시 경력 인정 ● 불교관련 단체(유치원, 복지원 등) 요청시 추천

2. 입학 안내 및 문의

홈페이지 주소 및 연락처 ● 영문주소 : www.sambobuddha.org ● 한글주소 : 삼보법회, 삼보사이버불교대학 E-mail : sambo@sambobuddha.org
(우) 136-849 서울시 성북구 정릉 4동 266-441 삼보사이버불교대학 사무국 TEL : 02)943-2858 FAX : 02)913-3746

(사)대한불교삼보회 삼보사이버불교대학

일주문



동국인 수계법회 봉행

도업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은 23일 동국대 문무관에서 괘불탱화 점안식과 동국인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독일·미국 등지 순회법회

법륜 정토회 지도법사는 6월 7~20일 독일과 미국 등지에서 '대승보살의 길'을 주제로 순회법회를 봉행한다.



대구·경북 평불협 대표에

장적 경산 안흥사 주지는 10일 대구불교방송에서 열린 평불협 대구·경북본부 창립식에서 상임대표로 취임했다.



종합 일간지 '메트로' 창간

이규행 메트로 사장은 31일 타블로이드 판형 종합일간지 메트로를 창간한다. 메트로는 주 5회 무료 배포된다.



카렐 워너 교수 초청 강연

김선근 인도철학회장은 24일 동국대에서 런던대 카렐 워너 교수 초청 '유럽에서 본 불교' 주제 강연회를 열었다.

화촉 본사 경영관리국 김학표 차장은 6월 2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청역 인근 문화웨딩홀에서 노희선 씨와 화촉을 밝힌다 (02)675-6000

태고종 춘명대종사 입적

원각사서 전북종무원葬 봉행



태고종 승정 춘명(春明)대종사(사진)가 19일 주석하고 있던 김제 원각사에서 입적했다. 세수 83세 법랍 75세.

1919년 전북 익산에서 태어난 춘명스님은 8살 때인 27년 완주 송광사에서 연성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금산사 강원 대교과를 수료하고 34년 문경 대승사 선원에서 안거 이래 7하안거를 성만했다. 스님은 전북불교총연합회장, 전북불교영산보존회장, 태고종 전북교구 원로원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98년 태고종 승정에 추대됐다. 춘명스님은 특히 1949년 불교교도회를, 65년에는 불교청년회와 학생회를 조직해 포교에 진력해 왔다.

춘명대종사의 영결식은 21일 김제 원각사에서 태고종 전북종무원장으로 봉행됐다.

"유치인들에 참된 삶의 길 제시"

밀양경찰서 경승실장 선운 스님



"유치인들과 경찰공무원들에게 불법의 가르침을 전해 진실된 삶의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5일 밀양경찰서 경승실장으로 취임한 선운(밀양 석골사 주지·사진) 스님은 경찰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계획을 밝혔다. 선운스님은 "유치인들을 위한 교화 활동뿐 아니라 밀양경찰서내에 불자회를 만들어 포교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겠다"는 각오다.

법당 개원법회와 함께 열린 취임식에서 스님은 "진실한 인간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팔정도를 실천하는 생활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나눔의 조화를 성숙시켜 가는 것이 경찰서 포교"라고 포교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며 "경찰서 포교는 순간의 실수로 고통을 겪고 있는 유치인들과 그들의 교화를 담당한 경찰공무원들을 함께 불제자로 만드는 일이므로 모든 사부대중이 함께 동참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새 법당은 밀양 표충사 주지 혜오스님의 불상과 탱화 보시로 장엄됐으며 월 1회 정기법회를 열게 된다. 또한 한글대장경을 비치, 유치인과 경찰공무원들의 신심을 다질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87년 시작된 밀양경찰서 포교는 91년 전임 경승실장인 혜봉스님의 취임으로 활성화됐다. 이후 매년 우수 경찰관에 대한 표창과 격려금을 전달하고 밀양합창단연합회와 함께 유치인 생일잔치 등을 주관해왔다.

선운스님은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유치인 교화의 근본이 될 것"이라며 '경찰서에 불심을 심는 경승실의 포교사업에 힘을 결집해 줄 것'을 호소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署에 불자회 만들어 포교 활성화

"자원봉사는 우리세계 눈뜨게 해"

인도 자원봉사활동 마친 선주 법사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은 우리가 사는 세계에 눈을 뜨고 자기가 할 일을 발견하는 계기가 됩니다."

인도 JTS 실무 총책임 소임을 맡았던 선주법사(34·사진)가 6년 동안의 자원봉사 활동을 마치고 인도에 머물며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인도봉사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일이 어린이들의 천민의식을 없애는 것"이라는 선주법사에게 인도는 제2의 고향이 됐다. 인도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이 앓은 풍토병, 제때 일을 하는 법이 없는 인도인 노동자와의 갈등 등을 겪으면서 인도인보다 더 인도인다워졌다는 것.

선주법사는 이제 정토법당에서 신행상담 소임을 맡게 됐다. "6년 동안의 봉사가 끝나고 귀국하니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컴퓨터 사용법 등을 익히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선주법사는 앞으로 아프가니스탄 등 인도 주변국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 6년 봉사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다. 선주법사는 또 "젊은 청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자원봉사를 통해 세계에 눈을 뜨길 바란다"며 동참을 촉구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아프간 등서 봉사활동 더 하고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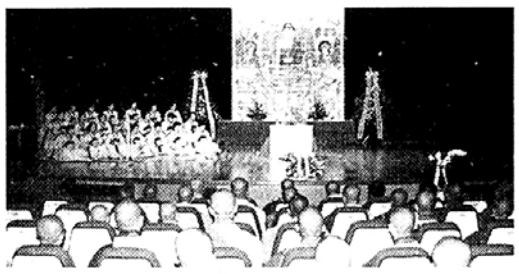
최근 귀국했다. 지난 1월에 발생한 설성봉 씨 피살 등 무장강도 사건을 비롯해 여러 번의 힘든 위기를 넘기며 선주법사는 인도 둥게스와리 지역 석가족 마을에서 지바카 병원과 기술중학교 건립, 마을 유치원 운영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93년 순례단과 함께 4차례 인도를 방문한 선주법사는 95년 아예



도선사 주지 혜자스님 취임

도선사는 23일 경내 호국참회원에서 혜자스님 주지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정대(조계종 총무원장)·종범(중앙승가대 총장)·청화(실천불교승가회 의장)·수경(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스님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혜자스님은 취임사에서 "청담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BBS 개국 7주년 법회

광주불교방송(사장 이상진)은 10일 광주 KT정보센터에서 개국 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보성(송광사 방장)·천운(향림사 조실) 스님 등 6백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보성스님은 "호남지역의 불국정토를 위한 불교 홍포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부불신도회 노숙자 무료급식

부산불교신도회 복지환경분과위원회(위원장 이기표)는 12일 부산역 광장에서 실직 노숙자 1200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했다. 이날 동참한 분과위원 30여명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봉축의 미를 되새겼다.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도 16일 부산역 광장에서 무차공양법회를 열고 1,700명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했다.



영남불교대·관음사 창건 10돌 법회

대구 영남불교대학·관음사(주지 우학)가 15일 법당에서 창건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대구 불교신행단체연합회 박운식 회장 등 1천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우학 스님은 "10년을 한결같이 사찰과 함께한 학생·신도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10년 과정의 삼장법사 수료증을 받아든 창건 멤버 48명의 신도들.

"불교음악 작품화 하고 싶어"

월드컵 축하곡 작곡한 박은선 씨



지난해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이화여대에서 음악이론으로 첫 박사학위를 받아 화제를 모았던 한양대 음대 강사 박은선(51·사진) 씨가 작곡한 '환이(桓伊) 소리'가 월드컵 축하 초연곡으로 24일 대전시립 연적정 국악원에서 무대에 올려졌다.

학위수여식후 첫 창작품으로 음악계의 주목을 모은 이 작품은 여백의 아름다움을 테마로 피리·대금·가야금의 세 주제가 어우러진 국악이다.

"환이는 허균이 엮은 〈한중록〉에서 왕휘지에 대한 일화속에 등장하는 피리의 명인입니다. 왕휘지가 환이의 소문을 듣고 만나고 싶어 하다가 마침내 배타는 둑방에서 우연히 조우합니다. 두사람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피리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이에게 피리를 들려주고, 듣고 싶었던 소리를 듣는 것으로써 두 사람 사이의 교감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 아쉽고 모자란듯한 여백의 아름다움을 작품화 한 것입니다."

창작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법정스님의 칼럼을 읽고 나서부터라고. 불현듯 가장 가까운 독실한 불자 친구의, 여백의 미를 담은 삶의 자세를 떠올리던서 박 씨는 이 작품에 매달려 2개월간 두문불출 작업했던 것. 꼭 해보고 싶은 작품은 본격적인 불교음악이라는 박씨는 매일 주위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이란 명예기자

초연곡 '환이소리' 음악계 주목

"더욱 정진…4년공백 메울터"

종로署 법우회 재창립 최병문 회장



"99년 이후 4년의 공백을 메운다는 각오로 더욱 열심히 정진하는 모임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9일 재창립한 서울 종로경찰서 법우회 최병문(50·수사2계장·사진) 회장은 회원들의 신행활동 권장은 물론 회원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중심지이면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사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상황 근무와 중요 업무 등 치안 수요가 많아 회원들이 정기적인 모임에 자주 참석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아쉬움을 토로한 최 회장은 "다른 경찰서 보다 더 많은 회원과 더 돈독한 신심을 갖는 모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도법사인 조계사 무각스님을 모시고 조계사 신도들과의 합동법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회원들간 돈독한 정을 나누고 신심을 다져 내실있는 모임으로 키우겠다는 각오다.

최 회장은 97~98년 동대문경찰서 근무시절 불교회 회장을 맡는 등 모범적인 신행활동을 보여 왔다. 지금도 부인과 함께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극락사 등 사찰에 다니며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모의 영향으로 대학에 다니고 있는 두아들도 불교에 귀의해, 최 회장 가족은 매주 일요일이면 함께 법회에 참석하는 등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박봉영 기자

조계사 신도들과 합동법회 추진

3일 안에 깨 닫 는 다

깨달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수년 동안 수행에도 얻기 힘든 깨침을 3일 안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성취와 결과는 매우 분명하며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립니다.

부처님 당시 '마하가섭'은 8일만에 지혜의 눈이 열려 아라한(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중국의 백림사(하북성 조현)와 보봉사(강서성 정안현)에서는 이미 찰나(돈오)에 깨치는 3시간의 수행법이 있어 왔습니다.

- 쉬고 싶지만 쉬지 못할 때
- 일상 찌든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번민, 갈등, 괴로움과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지 못해 방황할 때
- 부족함 없이 사는 지혜를 얻고자 할 때

체험하는 만큼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다.

- 무념 무상과 삼매를 언제나 이룰 수 있는 능력
- 생사의 두려움에서 초월할 수 있는 능력
- 영가들의 장애에서 벗어나 스스로 천도 확인할 수 있는 능력
- 꿈의 시달림에서 해소

禪林 주위환경
수려한 경관에 수련지 전용 현대식 목조주택, 수목원, 산책로(호수), 약수

수 련 과 정

本 性 3박4일	참마음, 無分別智
無爲法界 2박3일	眞空妙有, 寂照現前 無分別後得智
無 上 覺 2박3일	업장소멸, 조상과 영가천도(薦度), 마음의 치유와 휴식 원하는 대로 이루는 법칙, 自義的 삶 꾸리기, 氣(에너지), 마음과 최면(催眠)
安 息 2박3일	藥이 필요 없는 온전한 몸 다루기 삶의 유희(遊戲)

033) 435-3166, 435-6166 FAX 435-8166

참마음수련 心田 대광사

오가피를 아신다면 이글을 꼭 읽어보십시오!!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주)수신오가피 대표 / 성 광 수氏

업 체 명	제 품 명	아칸토사이드D 함량(㎍/g)
(주)수신오가피	수신토종오가피차 골드	98.82
(주)한국지연과학	함박재 가시오가피 백두	16.52
(주)한국지연과학	함박재 가시오가피해피니스	7.47
(주)바이오젠코리아	고려가시오가피	15.49
파진바이오(주)	경희가시오가피	21.32
고려한백인터내셔날	실크오가피Q	검출안됨
대전충남염소농협	토종가시오가피	검출안됨
고려인삼과학	토종아생가시오가피	7.00

※상기함량은 각 제품 1g에 들어있는 아칸토사이드 D의 함량입니다.

업 체 명	제 품 명	아칸토사이드D 함량(1회복용분)
(주)수신오가피	수신천사토종오가피	4957.75
파진바이오(주)	진생성장원	504.90

안녕하십니까?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입니다.
참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근래들어 우후죽순으로 오가피 혹은 가시오가피를 사용했다는 제품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생산될 수 있는 원료가 없다 것을 알고있는 지로서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이들제품들을 무작위로 구입하여 분석해봤습니다. 그결과는 너무나 경악스런일이었습니다. 혹시나 착오가 아닐까 재차, 삼차 분석해봤습니다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칸토사이드 D(Acanthoside D = Eleutheroside E)란 성분은 오가피의 지표물질로 삼고있는 오가피의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오가피의 제품은 가짜입니다. 또 이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냐에 따라 정말로 제대로된 원료를 사용했는지, 또 원료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가시오가피가 좋다고 선전해오던 업체들은 이구동성으로 가시오가피가 다른 오가피등보다 월등하게 좋으며, 그 이유로 아칸토사이드 D가 더 많이 들어있다는 주장을 하곤했습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들이 만드는 제품에 지회제품보다 이 성분이 훨씬 많이 들어있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또 오가피가 비쌀이유가 없다면서 저희제품보다 훨씬 싸다고 선전하는 제품들이 연일 신문지상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희제품과 같은 양의 오가피를 섭취할수 있으려면 표에서 보실수 있듯이 몇배에서 몇십배나 되는 양을 더 먹어야 할것입니다. 이것이 싼것입니까?

이 실험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업주께서는 시중에서 무작위로 구입한 귀사의 제품과 저희 제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식품의약품안전청등 국가기관에 공동의뢰하여 공개적으로 실험한 것을 제의합니다. 참고로 이곳에 게재된 실험결과는 저희 실험실만이 아니라 국립대학교 2곳, 제약회사 1곳, 국가공인기관 1곳에서 실험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소비자여러분께서는 오늘 게재된 제품외에 다른 오가피제품이 있다면 저희에게 실험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무료로 성분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혀 오가피 또는 가시오가피를 수확하지도 않으면서 오가피제품이라며 판매하는 제품이나 겨우 몇천평에 불과한 재배지를 몇만평, 몇십만평으로 부풀려 광고하는 제품, 북한산야생이라 훨씬 좋다는 제품들에 더이상 현혹되지 마십시오. 품질은 정직한것입니다. 앞으로 국내의 모든 오가피제품을 검사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 올림.

문의전화 (02)447-9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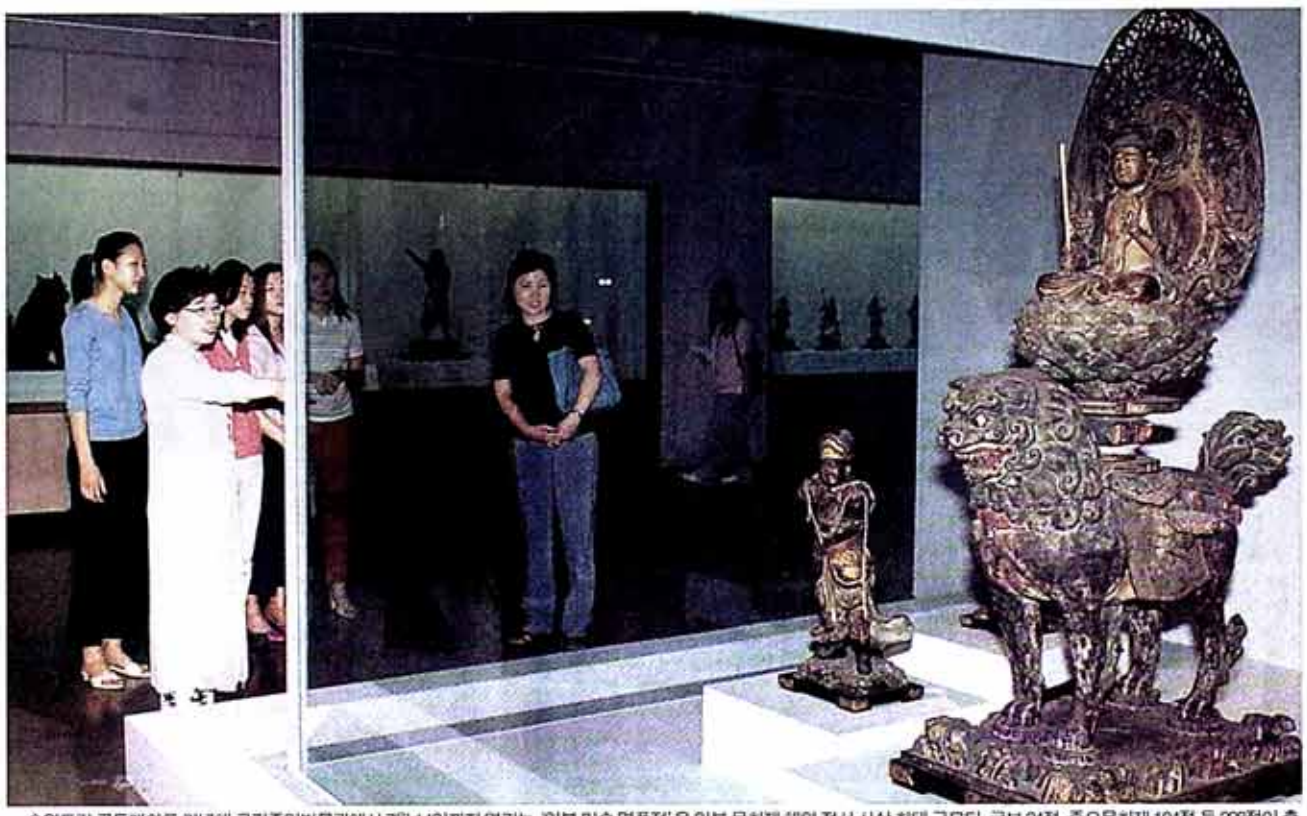
사찰 불사탑, 이제 무한21이 함께하겠습니다
종교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주)무한 21.
143-823 서울 광진구 구의 1동 223-65호 풍성빌딩 3층
대표 02)447-8847~8 팩스 : 02)447-7071 www.muhan21.com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인터넷 도서주문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막오른 '문화월드컵' …박물관 특별전 봇물

월드컵은 축구 경기만이 아니다. 스포츠를 넘어 세계인의 문화 축제다. 중앙 및 지방 국립박물관들은 세계인들이 한국으로 시선을 모으는 만큼 요란하지는 않지만 나름의 색깔을 살린 특별전을 일제히 준비했다.

월드컵 공동주최를 기념해 일본의 국보급 문화재가 대거 한국전시회를 갖고 불상이나 불화, 사경 등 우리 문화유산이 일본, 중국과 어떻게 다르고, 또 얼마나 닮았는지 짚어볼 수 있는 전시회와, 지역의 국보급 문화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도 열리고 있다. 이런 자리게 핵심을 이루는 것이 불교 문화재다.

월드컵 기간 중 우리 나라를 찾는 외국인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자는 취지의 이들 전시회에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문화를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소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월드컵 공동개최를 기념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7월 14일까지 열리는 '일본 미술 명품전'은 일본 문화재 해외 전시 사상 최대 규모다. 국보 24점, 중요문화재 104점 등 298점이 출품됐다. 25일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가마쿠라시대(13세기) 제작된 목조문수보살 및 시자상(중요문화재)을 한국의 문수보살상과 비교해 보고 있다. 사진=고명배 기자



◇국보 184호 금동관음보살입상(경주박물관, '신라의 금동불').



◇국보 175호 송광사 경패의 뒷면(광주박물관, '남도 명품전').

회화·조각·서적 등 5분야

◇국립중앙박물관 '일본 미술 명품전'

회화, 조각, 공예품, 서적, 고고자료 등 5개 분야를 망라한 일본 문화재 189건 298점이 출품됐다. 이 중에는 국보 17건 24점과 중요문화재(한국의 보물에 해당) 72건 104점이 포함돼 있다. 월드컵 공동 개최를 기념해 한-일 양국의 문화재 교환전시의 일환으로 열리는 것으로 전시품 대부분이 한국에서 첫선을 보이는 것들이다.

주요 출품작으로는 에도시대 사누키산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지는 기원전 1세기 무렵 야요이 시대 청동방울과 헤이안 시대 옻칠공예품인 연당초무늬 마키에 경전함, 가마쿠라 시대 불상조각인 목조문수보살 및 시자상, 헤이안 시대 제석천상, 일본서기 등이 있다.

일본 미술의 원류가 대륙에 있음을 숨기진 않지만 그보다 독자적인 재창조에 초점을 맞춰 출품작을 골랐다는 것이 일본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7월 14일까지 전시. (02)398-5077

고구려·백제·중국 불상도

◇국립경주박물관 '신라의 금동불'

신라의 금동불에 나타난 정신세계와 미의식을 당시 동아시아 삼국과 견줘볼 수 있는 전시회다. 신라 금동불상은 물론 고구려, 백제, 중국, 일본의 금동불상도 함께 전시된다.

국보 78호 금동반가사유상과 국보 184호 금동관음보살입상, 보물 331호 방형대좌금동반가사유상 등 신라의 금동불과 일본 중요문화재인 나라 반야사 소장 금동약사입상 등 일본 금동불 2점, 한강 뚝섬에서 출토된 중국 5세기초 금동불좌상 등 53점을 시대별, 주제별로 나눠 전시한다. 미술관 조각실(I)에서 7월 14일까지 전시된다.

15일 개관한 미술실은 특별전이 열리는 조각실(I)외에도 역사자료실, 조각실(II), 금속공예실, 황룡사실 등 미술관 전체가 신라의 불교미술품으로 채워져 있다. (054)772-5194

전남지역 출토 명품 한자리

◇국립광주박물관 '남도 명품전'

29일부터 7월 14일까지 열리는 '남도 명품전'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출토됐거나 만들어진 국보급 명품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국보 143호 화순 대곡리 청동유물 11점 등 선사시대 유물 49점과 국보 295호 나주 신촌리 금동관 1점 등 고대 유물 61점, 국보 103호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등 불교 유물 25점이 선보인다. 이밖에 보물급 청자와 고문서 등과 지방문화재 190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불교 문화재는 대부분 송광사, 보림사, 선암사에서 빌려왔다. 보물 175호인 송광사 경패, 보물 1251호 보림사 금강반야바라밀경 권제1, 역시 보림사 소장인 보물 1252호 상교정본 자비도량참법과 보물 745-9호 보림사 월인석보 등이 눈여겨볼 만하다. (062)570-7000

한중일 불교미술 비교기회

◇경기도박물관 '同과 異-라오닝성·가나가와현·경기도 문물전'

도립박물관이긴 하지만 중국, 일본의 유물을 우리 유물과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중국 라오닝성 박물관 소장 유물 69점과 일본 가나가와현 역사박물관 소장 유물 59점, 국내 박물관 소장 유물 50점이 전시된다. 한·중·일 불교미술(불상과 공예) △한·중·일 불화 △한·중·일 고고유물 △한·중·일 도자기와 금속공예 및 칠기공예 △한·일 서화 등의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한·일 음악제와 무용제, 해설이 있는 우리 춤, 국제학술 강연회 등 풍성한 부대 행사를 마련했다. (031)288-5300

이밖에 국립대구박물관(053-768-6052)은 우리 나라 복식의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는 '한국 전통 복식전'(~8월 4일)을, 제주박물관은 '추사 김정희와 제주'(~6월 30일)을 개최한다. 공주박물관(041-852-7714)은 '금강' 특별전(~6월 30일)과 '금강의 나루터' 사진전(~7월 14일)을, 전주박물관(063-223-5652)은 '우리 문화 속의 대나무' 전(~7월 7일)을, 김해박물관(055-325-9331)은 고대 가야의 철기문화를 소개하는 '한국 고대의 갑주' 전(6월 30일)을, 청주박물관(043-255-1632)은 '중원문화 조형예술전'(~7월 7일)을 개최한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일본 아스카 시대(7세기) 금동반가사유상.



◇일본 야요이시대(2~3세기)에 만들어진 청동방울(중요문화재).





◇일본 헤이안시대(12세기) 구노지경(중요문화재).

일본미술명품전…어떤유물 선뵈나

국보 24·중요문화재 104점

회화, 조각, 공예품, 서적, 고고자료 등 5개 주제로 나는 전시에서 아무래도 눈길이 쏠리는 것은 불상이 몰려 있는 조각 코너다. 아스카 시대(7세기)나 나라 시대(8세기) 금동불상들은 신라 불상들과 양식면에서 많이 닮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7세기 금동반가사유상은 한국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다. 일본의 독자적 미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헤이안 시대(11세기) 목조 아미타여래좌상에서도 고려 불상과의 친화성을 느낄 수 있다.

친숙하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와 차이가 느껴지는 것이 또한 불교 문화재이기도 하다. 한국은 금동불이나 석불이 많은 데 비해 목조 유물이 많은 것이 가장 큰 특색이다. 재료뿐 아니다. 목조 문수보살 및 시자상(13세기)의 경우 한국의 문수보살과는 달리 밀교적 영향을 받아 칼을 들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시자상을 사방으로 배치한 것 역시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구도다. 조각의 경우 삼국의 영향을 받은 7~8세기 불상보다는 일본의 독창성이 돋보이는 12~13세기 작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삼국 불상의 영향을 엿보려는 관람객들은 실망이 앞서기도 한다.

수량은 많지 않지만 사경류도 눈여겨볼 만하다. 헤이안 시대(12세기) 구노지경에서는 금과 은을 뿌리고 그 위에 금은니로 밀그림을 그리는 등 화려하게 장식하는 (장엄경) 일본 사경의 특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국보인 지지금니광명황승왕경(8세기)은 보라색 종이에 금줄을 긋고 금니로 글자를 썼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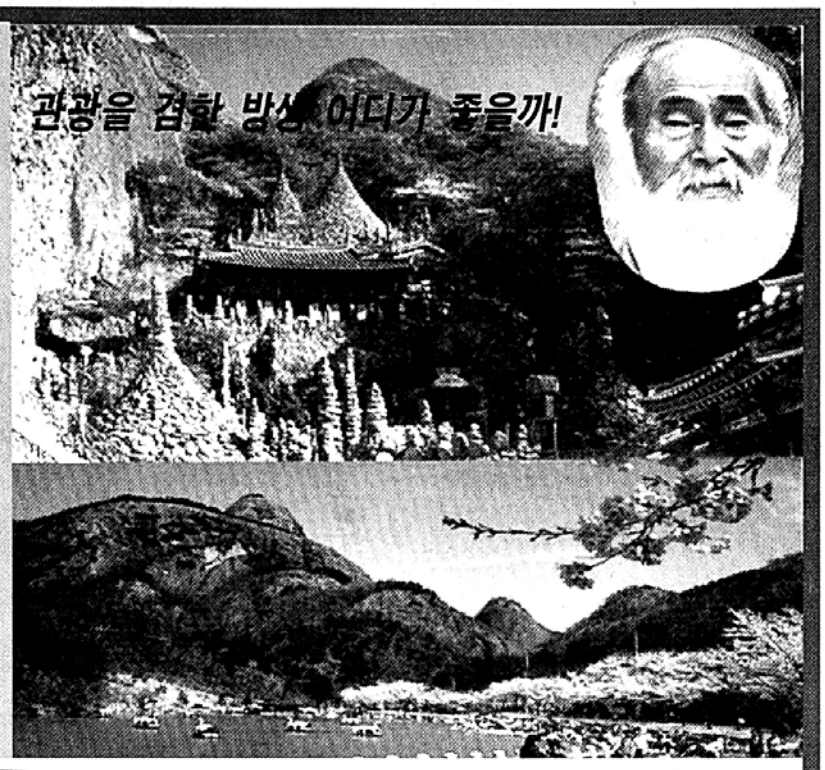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곱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진안 마이산 탑사
☎ 063)433-2900,0303
432-0652,0072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到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 마 당 長腦山蔘

사찰 납골탑. 이제 무한21이 함께 하겠습니다

◇ 우리 모두는 불자들입니다.
◇ 스님과 불자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 스님과 불자를 믿음과 정성으로 섬깁니다.

무한21 영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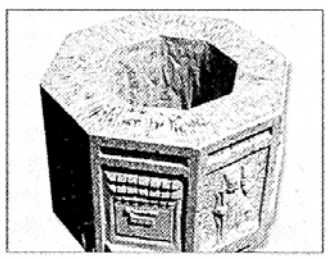
1. 결로 방지 및 통풍에 역점을 두어 제작.
2. 최상의 품질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
3. 사찰 신도관리 프로그램 무료지원.
4.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과 관리.
5. 납골탑 분양관련 제반업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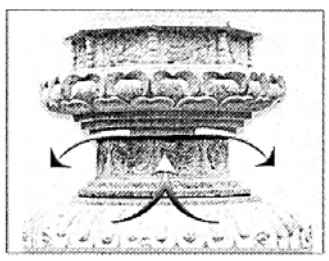
전통 불교미술 방식을 그대로 계승한 8각형 납골탑



편리한 개폐식 봉분실



탑신부 내부의 중앙 유품실



결로방지 및 신속한 통풍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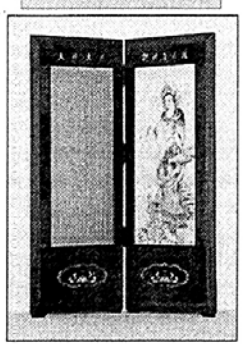


불교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주)무한 21.
143-823 서울 광진구 구의 1동 223-65호 동영빌딩 3층. 전화 : 02)447-8847~8 팩스 : 02)447-7071 www.muhan21.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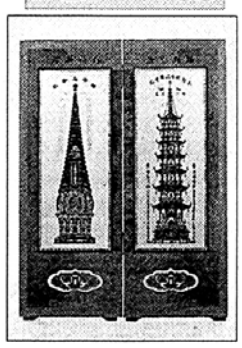
"집안의 어느장소이든 펼쳐만 놓으시면 그앞이 법력(法力)과 법기(法氣)로 충만된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되는……

관음(觀音)병풍 과 불탑(佛塔)다라니병풍

▣ 관음병풍



▣ 불탑다라니병풍



규 격 (2폭)높이:153cm 폭:120cm 무게:30kg

◘ 보급가 : ₩1,300,000(한폭당)
<신용카드할부구입가능)

※카다로그를 원하시면 연락주시는 대로 보내드립니다.

①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특 징

① 집안내의 어는 장소이든 구애 받음이 없이 펼쳐 놓을수 있으며, 어느공간이든 본 병품을 펼쳐 놓으면, 그곳이 법력과 법기로 가득찬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됩니다.
② 병풍은 전체가 모두 두꺼운 무늬목 목재로 되어 있어 변형되지 않고, 영구적이며, 백의관세음 보살님은 황동판 위에 모시어 훼손 될 염려가 전혀 없으며, 불탑다라니와 관세음보살 보문품경은 황동 판위에 양각으로 새겨서 금도금을 한후 표면에 특수코팅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으며 먼지등이 묻었을 때에는 고운 융걸레로 닦으시면 됩니다.
③ 불자 집안의 가보로서 대대손손 물려주실수 있는 성품(聖品)입니다

⊙ 카다로그를 보실때보다 본 병풍을 직접보신 불자님들은 모든분이 한결같이 환희심을 내시어 집안에 모셔가겠다고 마음을 내실 정도의 성품이므로 본회에서도 직접보여드릴방법을 강구하고 있아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음병풍과 불탑다라니 병풍은 그효험이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연따라 마음에 닿는 한 병풍만 택하시면 됩니다.
⊙ 현재 큰스님방에 펼쳐놓으시도록 시주하시는 신도분들도 계시고 본인의 집과 분가한 자녀들의 집에 한품씩 놔 주시는 불자님도 계십니다.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①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끝내 울음을 터트린 나라. 할머니 가슴에 얼굴을 파묻은 채 흐느끼고 있다.

병든 할머니 · 아버지 수발 7년째

'안무가' 꿈접은 소녀가장

서울 강남역 번화가. 병풍 같은 빌딩 숲을 한참이나 헤치고 나서야 주차장 옆 간판공장이 눈에 들어온다. 코끝을 자극하는 화학 본드냄새와 갖가지 공구가 나뒹구는 휑한 공장 안, 그 한 구석에 초라해 보이는 컨테이너 박스가 자리 잡고 있다. 햇빛은 커녕 환풍조차 되지 않는 이 곳은 다름 아닌 나라네 가족의 보금자리다.

컨테이너 박스서 생활

막 학교에서 돌아온 나라(16 · 진선여중3)는 교복을 갈아입을 겨를도 없이 아버지 이상진 씨(47)와 팔순이 넘은 할머니의 약부터 챙긴다. 최근 들어 아버지의 간질환이 심해지면서 정신을 놓는 경우가 부쩍 늘어나, 학교에 가도 집 걱정에 마음을 놓지 못한다. 그나마 아버지 곁을 지켜오던 할머니 최진규 씨(83)마저 류마티스 관절염이 도져 거동을 못하게 됐다.

나라의 키와 맞닿는 낮은 천장. 지하 식당의 환풍관이 가로지르는 탓에 온갖 먼지와 냄새가 방으로 들어와 창문을 열어 놓을 수도 없다. 이러다보니 나라네 식구들은 호흡기 질환을 몸에 달고 산다.

나라네 식구들이 이곳에 살기 시작한 것은 지난 해 8월. 아버지 이 씨가 95년에 '간경화증 말기' 진단과 함께 일종의 간질증세를 보이는 '간성혼수'라는 병을 얻게 되면서, 급격하게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다. 게다가 '간성혼수'에 걸린 아버지는 횡설수설하고, 심지어 자신도 모르는 행동을 할 때가 많아 잠시라도 눈을 뗄 수없는 상황이어서 나라는 학교조차 가지 못했다. 급기야 어머니가 생활고를 비관한 나머지 이혼하고 집을 나가버렸다. 소녀가장으로 지낸 지 벌써 7년째. 그동안 아버지의 병원비와 수술비로 가산이 모두 탕진됐고, 은행돈까지 쓰게 되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아버지는 신용불량자가 돼버렸고, 이런 이유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서도 제외돼 정부지원금조차 없이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 한달에 15만원 넘게 들어가는 아버지의 병원비와 10만여원의 공과금 등 생계비를 댈 수 없는 형편이라 친척들과 친구들이 보태주는 30여 만원에 의지해 살고 있다. 그날그날 '연명만 하는 처지'에, '무용 안무가'가 되고 싶은 나라는 이미 그 꿈을 접은 지 오래다.

생활보호대상도 안돼

나라의 손등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진다. "그저 아버지 병이 빨리 낫기만을 바랍니다…" 사춘기 소녀가장의 어깨가 한없이 움츠려든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7 영동주차장 내

전화번호 : (02)557-5637

후원계좌 : 신한은행 215-02-116646(예금주 이나라)

김철우 기자

신행 캘린더

5월 29일 (수)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자녀독서 강좌' = '아동들에게 어떻게 유익한 동화를 골라서 읽힐까?'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마련한 자녀독서교육 강의를 들어보면 이런 염려는 깨끗하게 사라진다. 동화읽는어른모임 소속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이 강좌의 참가비는 무료.(02)852-0525

■호림박물관 '불교미술명품전' = 호림박물관은 8월 31일까지 불교미술 명품 140여점을 전시한다. '불교미술명품전-자비와 장엄의 미'라는 제목의 이번 전시는 불상, 전적, 공예, 불화, 사경 등 5가지 소주제로 구성된다. 11세기 경에 만들어진 고려 '초조대장경'을 비롯, '초조본아비달마식신족론 권12'(국보 267호) 등을 감상할 좋은 기회.(02) 857-3874.

■영은미술관 '동방의 숨결전' = 경기도 광주 영은미술관이 6월 6일까지 3인 불교작가들의 대표작을 모은 '동방의 숨결전'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일상적 체험을 불교의 깨달음으로 승화시키려는 김기철, 방혜자, 양주혜 씨 등의 도자기, 펠트천 염색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031)761-0137

5월 30일 (목)

■고산스님 '초청법회' = 서울 구파발 흥국사는 오전 10시 대법당에서 쌍계사 조실 고산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무주상 보시는 내가 많이 가져서 남을 돕는게 아니라 더불어 살기위해 내 것을 나누는 일'이라고 가르치시는 고산스님을 통해 이웃과 더불어 사는 불자의 지혜를 배워보자 (020381-7970

5월 31일 (금)



◇제10기 통일대화마당.

■좋은벗들 '통일대화마당' = 우리 청소년들의 통일관은 어떨까? 좋은벗들은 하자센터 진효관 부관장을 통해 청소년들이 남북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오후 6시 30분 서울 서초동 정토회관에서 마련했다. 이번 강좌는 6월 28일까지 계속된다.(02)587-8996

6월 1일 (토)

■용진신행회 '성지순례' = 남해 보리암, 여수 향일암, 화순 관음사….

원효스님이 창건한 보리암은 낙산사 홍련암, 강화 보문사와 함께 한국 3대 관세음보살 성지. 또한 남해의 소금강 금산에서 바라보는 일출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여행의 출발은 오전 7시 을지로 6가 국립병원 앞. 참가비는 1박2일에 5만원.(02)2279-1191

6월 2일 (일)

■불교환경연대 '북한산 살리기 산행' = 불교환경연대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지하철 1호선 망월사역에서 북한산 살리기를 위한 정기 산행모임을 갖고 있다. 북한산 살리기 홍보 행사를 겸하고 있는 이 산행은 아름다운 북한산을 둘러보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02)734-1915

■옥수종합복지관 '가족사랑나눔 아유회' = 청소년들이 홀로 외롭게 여생을 보내는 노인들에게 따듯한 가족 사랑을 전하는 기회.

옥수종합복지관은 오전 9시 서울 노원구 태릉 푸른동산에서 독거노인들과 청소년들이 사랑을 나누는 행사를 마련했다. 청소년을 둔 가정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02)2282-1100

귀한 손님에 전통 절음식 접대

우리 절 우리 신도

삼광사 전통요리보존 연구회 박숙희 부회장



◇박숙희 보살(맨 오른쪽)이 도반들과 함께 사찰 행사에 쓸 음식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

"기도 정진하는 마음으로 음식 만듭니다"

자신운영 '동백홀' 법회·불교행사장 제공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해 가는 삶의 실상은 무상(無常)함이다.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순리를 따르게 마련이지만 부산 삼광사의 새벽 법당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법당을 맡아보는 보살이 몇 명이나 바뀌는 동안에도 7년째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는 삼광사 전통요리보존연구회 부회장 박숙희 보살(54 · 부산시청 동백홀 대표)의 신심은 변할 줄을 모른다.

"부처님께 문안 인사드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는 박 보살에게 매일의 새벽예불과 108 참회기도는 더 이상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이 되었다. 부산시청내의 동백홀을 운영하는 박 보살의 바쁜 일과를 아는 이들은 그의 한결같은 신심에 감탄한다.

15년 전 초파일, 삼광사와 첫 인연을 맺은 박 보살은 첫날부터 연등 접수받는 일을 했다고 하니 인연이 예사롭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몇 달 뒤 박 보살은 여름방학을 이용해 아이들을 데리고 무작정 구인사 기도에 동참했다. 4박 5일 동안의 기도 중 환희심을 체험한 박 보살은 이후 삼광사의 철야용맹정진과 기도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신심을 키워왔다.

3년 전, 새벽예불에 오던 중 음주운전자에 의해 죽을 고비를 넘긴 후 박 보살의 신심은 더욱 깊어져 불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로 승화되었다. 3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동백홀도 각종 법회나 불교 행사장으로 제공하며 어려운 이들에겐 음식값을 할인해주고 있다. 이 밖에도 박 보살은 부산불교신도회 이사로 활동하는 등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이 모두가 자신이 받은 가피를 돌려주는 길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13년 전 10여명이 모였던 기도모임인 동산회를 모태로 8년 전 정식 창립된 전통요리연구보존회의 활동에서도 그의 신심은 유감없이 발휘된다. 박 보살은 삼광사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전통 사찰음식의 맛과 멋을 살려내며 현대화된 사찰음식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전통요리연구보존회에서 부회장 자리를 지키며 회원 100명이 활동하는 봉사단체로 키워냈다. 회장이 바뀌는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부회장 자리를 지켜 온 박 보살은 10년 동안 삼광사의 손님상을 차리는 안주인이었다.

신도 33만 명의 대표적 도심포교 사찰로 큰 행사가 빈번한 삼광사. 행사 때마다 박 보살을 비롯한 전통요리연구보존회 회원들은 불가 전통의 사찰음식으로 국내외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귀빈들을 접대해 왔다. 신선한 재료를 선택하는 일부터 맛깔스런 음식을 조리하는 일까지 꼬박 날을 새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힘든 준비과정이 오히려 기도와 정진의 계기가 된다는 것이 박 보살의 생각. "정성을 다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임한다"는 박 보살은 "모든 회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준비한 음식을 귀한 분들이 맛있게 드실 때 피곤함을 잊고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했다.

삼광사의 품격을 대변하는 음식상을 차려온 이들은 초파일을 앞두고 부쩍 바쁜 나날을 보냈다. 초파일을 앞두고 열렸던 노인경로잔치 때는 4천 개의 도시락을 준비했는가 하면, 봉축 행사에 차려질 음식 준비를 꼼꼼히 챙기느라 박 보살은 자신의 업무를 접어두고 삼광사로 출근하다시피 했을 정도.

박 보살은 "초파일 잔치가 끝나면 전통요리연구보존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6개월 과정의 요리사자격증반을 무료로 개설할 예정"이라며 "사찰 전통 음식 전시회를 기획, 많은 이들에게 사찰 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초창기부터 같이 활동해 온 김영희 총무(48)는 "실천수행이 철저하고 남모르게 시주도 많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마음도 바르게 쓰는 등 세 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진실된 불자"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부산=천미희 기자

추천의 말

도원스님 부산 삼광사 주지



삼광사는 사찰의 규모만큼 신도도 많고 절살림도 한두 사람만으로는 해낼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특히 삼광사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행사에 초대되는 귀빈들을 접대하는 일은 삼광사의 인상을 심는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중대한 일을 전담해 봉사를 해주시는 전통요리연구보존회의 회원들은 삼광사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분들입니다.

전통요리연구보존회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봉사활동을 해온 박숙희 보살은 첫마음을 견지해 온 신도입니다. 매주 철야용맹정진에서 정진하는 박 보살을 보면 초발심을 잃지 않는 불자의 전형을 보는 듯 합니다. 또 기도에 빠지는 법이 없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행으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이 꼭 읽어야 할 불교 신행의 지침서

신간

우룡 큰스님의 금강경 강설집!

생활 속의 금강경



지금 이 순간의 고난과 그릇된 마음을
항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깨달음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음공부를 잘 섭취하고자 하십니까?

이제 금강경을 공부해 보십시오!

시대와 종파를 초월하여 불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금강경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생활 속의 금강경』은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 큰스님께서 그토록 어렵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생활에 접목시켜 쉽고도 재미있게 풀이한 책입니다.

이제 『생활 속의 금강경』을 통해 마음 다스리는 법을 터득하시어 우주에 가득찬 지혜와 영광과 행복을 가득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특징》
- 한글 번역의 문체가 아름답습니다.
- 심오한 금강경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하였습니다.
- 일상생활과 접목시켜 강설함으로써, 삶의 현장에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능히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감동을 주는 일화들을 많이 삽입하여 재미를 더했습니다.

신국판 / 304면 / 값 6,000원

무욕과 무소유의 가르침을 오롯이 담아낸 핵심 경전 금강경!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하는가?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우룡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5,000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타큰스님의 마지막 법문집. 불자의 근본 마음가짐에서부터 불교의 4대수행법인 참선 염불 간경 주력에 대해 자세히 설하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5,000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타큰스님의 대표법문집. 고된 삶 속에서 흔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맑고 주옥 같은 법문으로 행복의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과연 인간은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 큰스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읽다보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천수경 천수신앙



불자라면 누구나 독송하는 천수경에 대한 강설집. 경에 숨겨져 있는 참뜻, '천수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 준제진언, 여래 십대발원문까지 그 속에 숨어 있는 뜻을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어, 불자들을 깨달음으로 안내하는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혜국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시작하는 마음



보조국사의 《초심》을 일타 큰스님의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책. 누구나 쉽게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하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7,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 큰스님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해설해 놓았다. 이 책을 읽다보면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6,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자경문(自警文)》은 야운스님이 '자기를 돌아보고 깨우쳐 가는 속에 참된 자유와 행복이 발현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지은 것이다. 구구절절 게으름과 방종을 막는 따끔한 말씀으로 빛을 돋이켜 스스로를 비춰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6,000원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꼭 새겨야 할 마음가짐과 가르침을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엮은 오분향 예불문의 해설서. 불자들이 궁금해 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제 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법당, 사물(梵物), 석등, 탑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값 7,000원

육바라밀 수행법



특별한 수행자만이 아니라 일체 중생 모두의 성불을 보장하는 육바라밀 수행법!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의 여섯 가지 바라밀에 대해 그 정신과 실천 방법을 중심으로 쉽고도 재미있게 서술하였습니다.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책.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참과 지장염불을 할 때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방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틈입 없이 영가천도 업장소멸 소원성취 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 · 팩스 : (02) 586-9078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㉘ 제바달다품 제12

믿음과 왕생극락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佛告諸比丘). 앞으로 오는 세상에 만일 훌륭한 신앙심을 가진 남자와 여인이 있어(未來世中 若有善男子 善女人) 〈묘법연화경〉의 제바달다품을 듣고(聞妙法蓮華經 提婆達多品), 더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해 의심치 않고 당혹하지 않는 사람은(淨心信敬 不生疑惑者) 지옥·아귀·축생의 악한 갈래에 떨어지지 않고(不墮地獄餓鬼畜生), 시방의 부처님 앞에 태어날 것이며(十方佛前) 그 태어나는 곳에서 항상 이 가르침을 들을 것이다(所生之處 常聞此經). 만일 사람이나 천신으로 태어나면(若生人天中) 매우 높고 거룩한 정신적인 즐거움이 가득한 생활을 할 것이며(受勝妙樂) 부처님 앞에 태어날 경우에는 〈부모의 몸을 의탁치 않고도 완전한 신체를 갖추어〉 자연히 연꽃에서 〈보살로〉 태어나리라(若在佛前 蓮華化生)."

근래 〈법화경〉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흔히 '즉신성불(卽身成佛)'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다. 그런데 이 '즉신성불'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 하나는 "〈법화경〉을 믿으면 곧 그 몸이 성불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승불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밀교에서의 '즉신성불' 즉 "그 몸이 곧 부처이다"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즉 이것이 무엇이냐"하는 선문답이 있게 된 것이 아닌가. 곧 그대가 부처이다. 그러니 부처다운 일을 해야한다고 보면 틀림없다.

그런데 과연 〈법화경〉에 즉신성불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용녀성불(龍女成佛)'에서 볼 수 있다. 즉 사리프트라(舍利弗)가 용녀에게 질문하기를 "여자의 몸은 때묻고 더러워서 다섯 가지의 장애(五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인의 몸으로 성불이 가능한가"라고 묻는다. 그러자 용녀는 그 같이 삼천대천세계와 맞바꿀 수 있는 보배구슬을 부처님께 바치니 부처님께서는 곧 그 구슬을 받으셨다고 한다. 그리고 하는 말이 "부처님께서 내가 바친 보배구슬을 받는 것 보다 성불하는 것이 더 빠르다"라고 하며 남방의 무구세계(無垢世界) 즉 청정한 세계에서 남자로 변하여 성불하였다는 것이 바로 즉신성불을 증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받으신 보배구슬이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부처님께서 뇌물을 받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 삼천대천세계와 맞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믿음이란 그렇게 값진 것이니 믿음이 있어야만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한 것이 바로 값이 산천 대천세계와 맞먹는 보배구슬이다.

그런데 믿음이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흔히 우리들 인간의 대뇌의 활동에는 좌우(左右)가 서로 다르다고 한다. 왼쪽 뇌는 '로고스 뇌'라 하여 말이나 논리나 계산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오른쪽 뇌는 '파도스 뇌'라 하여 울거나 웃거나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만족해하는 정동적(情動的)인 작용을 관장한다. 뿐만 아니라 새의 울음소리나 풀벌레 소리에 감동하는 등의 작용을 관장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믿음이란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감성적인 것이라고 한다. 중국의 천태대사(天台大師)는 좌뇌를 구사하여 천태의 철학을 구축하였으니 로고스철학으로서 정밀하게 짜 맞춘(精緻) 천태의 교학은 너무나 이성적인 것이어서 믿음을 강조하는 일련종(日蓮宗)의 법화관(法華觀)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점이 많다.

오늘날의 〈법화경〉 신봉자들은 전자(前者)인 "그 몸으로 곧 성불한다"라고 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쿠마라지바(鳩摩羅什)가 번역한 〈묘법연화경〉에 귀의한다는 말인 '나무묘법연화경(南無妙法蓮華經)'을 구창(口唱) 즉 입으로 소리내어 부르기에 바쁘다. 사실 〈법화경〉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여래신력품 제21'에는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이라고 소리쳐 부르는 대목은 있지만 '나무묘법연화경'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선종인 조계종에서는 그 소의 경전인 〈금강경〉의 제목인 '마하반야바라밀'이라고 하며, 중국의 천태종을 위시하여 고려 천태종 및 일본의 천태종에서는 무시무종(無始無終) 즉 영원한 부처님이라는 인도의 말, 아미타불을 부르며 정근하고 있다.

아무튼 〈법화경〉 '약왕보살본사품 제23'에 "어떤 여인이 〈법화경〉을 듣고 그 설한 바와 같이 충실하게 수행한다면 그 수명을 마친 뒤에 아미타불이 많은 큰 보살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극락세계에 가서 연꽃 가운데의 보배자리 위에 태어날 것이다"라고 되어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설정사 조실

"법화경 듣고 충실히 수행하면 연꽃가운데 보배자리서 탄생"

일상생활 그

眞



덕 해 스

5월 날씨치고는 무더웠다. 반팔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조차도 이마에 맺힌 땀을 닦느라 손등이 연신 얼굴로 향했다. 서울 지하철 관악역에서 승용차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경기도 안양 보장사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13일 오후, 보장사 입구에 막 들어서자 왼쪽 편에 아치형의 미술관 같은 건물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석조에 세련미를 가미한 현대식 건물. 하지만 자세히 살핀 후에야 그 건물이 최근 완공된 납골당임을 알 수 있었다. 가파른 계단을 50개 쯤 올랐을까, 자그마한 법당 앞에서 가사에 장삼까지 수한 한 노스님이 물을 담은 대야를 마당으로 나르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승복만 아니었다면 대웅전 앞 석탑을 보수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인부들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았다. '이런 날씨라면, 더구나 궂은 일을 할 때는 작업복을 입는 게 더 나을 텐데….'

학교법인 보문학원 이사장이자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이사장인 덕해스님. 지금까지 일체의 언론에 단 한 차례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던 덕해스님의 모습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사장 정도면…'이라는 생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별 볼일 없이 사는 늙은이를 뭐하러 보러 오셨나?"

스님 말씀과는 관계없이 다른 것을 여쭈었다.

"지금까지 언론에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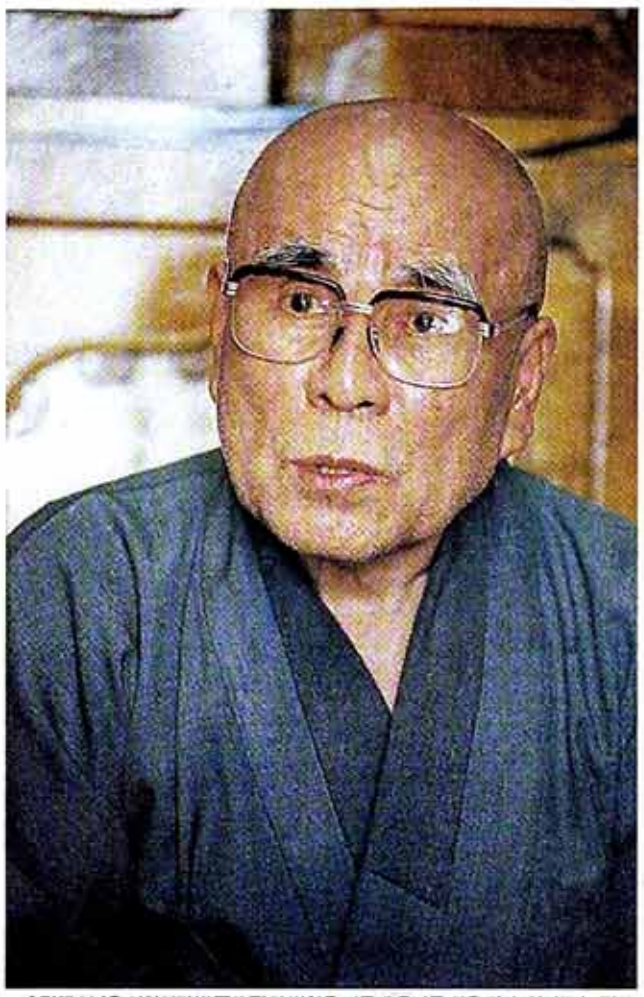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그랬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드러낼 것도 없고…."

덕해스님이 보장사를 창건한 것은 1968년이다. 창건 당시 덕해스님은 부처님 씨를 뿌리는 교육불사를 하겠다는 원을 세웠다. 스님이 교육불사를 해야겠다고 원을 세운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비구계를 받고 포교 일선에 나섰던 스님은 불자들이 기복적 신행생활에 젖어 있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셨다. 아무리 부처님 정법을 말해도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불자들은 많지 않았고, 특히 기성세대들은 그런 경향이 훨씬 심한 것을 알게 되면서 적지 않게 당황하셨다고 한다.

"이러다가는 불교의 앞날이 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도대체 제대로 배우려는 사람들도 없고,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아예 학생 때부터 신심이 돈독한 불자들을 키워야겠다는 결심을 하고는 오랜 기간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왔어요. 대전의 보문 중·고등학교를 인수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지요."

보문 중·고등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쭈었다. 스님이 그토록 굳은 결심으로 오랜 기간 준비하며 심혈을 기울여 온 결과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글쎄, 1년에 수계를 받는 학생이 1천명이 넘는다고 하면 답이 될까요. 13년 전 학교를 인수할 당시만 해도 소위 '깡패 학교'로 낙인찍혀 있을 정도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충청권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학명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저 부처님 정법으로 매사를 처리하다보면 자연히 모두가 따라와 주리라는 믿음 하나 만으로 일했습니다."



◇덕해스님은 선인선과(善因善果)의 법칙을 따를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고 늘 강조하신다.

덕해스님은?

덕해스님을 잘 아는 사람들 마디로 스님을 '머슴 같은 부 고 말한다. 잡다하고 궂은 일 아래 사람을 시키는 법이 없 무리 어려운 일도 전혀 내색하 으며, 계율에 철저해 불여진 다. 특히 교육과 복지사업을 불교의 사회회향을 실천하고 면서도, 좀처 어려 럼 자신을 드 러내지 않기로 '머슴 유명하다. 개 신교인인 안양 시장이 안양노인복지센터를 영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의 뜻 번이고 전해왔을 정도로 지 도 존경을 받고 있다.

스님의 뜻에 따라 서울불교 원대학 개교준비에 여념이 없 교안양원 김봉희 상무이사는 까지 스님처럼 청렴하고 검소

"佛子키워야…" 보문중고 인수

스님의 출가동기가 궁금했다. 스님께서는 진주중학교 시절 6.25전쟁이 일어나 학도의용군과 같이 군대에 입대했고, 전쟁의 참화를 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다고 하셨다. 특히 전쟁터에 끌려온 군인들 대부분이 농민들이고, 소위 '있는 집'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 부조리한 현실을 개탄하게 됐고, '이런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까' 고민하다가,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한 것으로 일했습니다."

부처님을 떠올리고는 출가를 결심하게 됐다고 하셨다.

"수행은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스님의 교육철학과 출가동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궁금증이 풀리자, 공부나 수행에 관한 스님의 말씀이 듣고 싶었다. 더욱이 대강백인 관응스님의 제자가 아니던가. 그런데 스님께서는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지셨다.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공부는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빙그레 웃으시는 모습이 꼭 어린애 같았다. 다소 근엄해 보였던 표정 데간데 없었고, '답할 것이 있으 보라'는 장난끼 마저 느껴졌다.

"가부좌 틀고 참선을 한 해서 다 수행이 아닙니다. 있어도 서 있는 생각을 하면 서 것이요, 서 있어도 앉아있는 생각 면 앉아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행을 해도 번뇌에 사로잡혀 면 수행이 아니요, 사소한 해도 정신을 통일하면 그것 수행인 것입니다.



대로가 眞佛의 모습

뭔큰스님

(불교안양원 이사장)

을 본 적이 없다"며 "스님의 교육에 대한 열의와 불교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소신은 정말 존경할 만 하다"고 말했다.

1932년 경북 상주에서 출생한 덕해스님은 1952년 경북 예천 용문사에서 관응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9년 김천 직지사에서 사교과를 수료하고, 1960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8년 안양에 보장사를 창건하고 1982년에는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을 설립해 활발한 포교활동을 펼이고 있다. 현재 불교안양원 이사장, 1990년에 인수한 학교법인 보문학원 이사장, 2000년 수탁한 안양시노인복지센터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교육·복지불사에 진력하고 있다.

색않아

처' 별칭

"나는 늘 한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출가한 이래 50년 동안 줄곧 포교를 수행이라 여기고 매진해왔습니다. 참선도 좋고 공부도 좋지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것이지요.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제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의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나로 인해 더 많은 중생이 이로운 길을 찾았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포교였습니다. 나는 지금도 새벽 3시에 어김없이 일어나서 목탁을 치며 예불을 올리고, 종도 직접 칩니다. 이런 일상이 모두 수행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일상 그대로가 진법(眞法)이자 진불(眞佛)의 모습입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만, 찾아내 일으키면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일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 어디에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스님 말씀 끝에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수행이라 함은 모름지기 모든 집착을 버리는 것이거늘, 일상에 매달리는 것이 어찌 수행이 될 수 있을까.'

"집착하지 않고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와 보살도 중생을 구하겠다는 원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원도 집착 아니겠습니까.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깥세상이 아니라 바로 자기 속의 '나'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에 대해 억지를 부리는 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나를 위한다는 마음을 벗으면 아무 것도 걸릴 것이 없습니다."

덕해스님은 검소하기로 소문나 있다. 지금까지 그 흔한 승용차 한대 구입하지 않고,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올라갈 때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그것도 '노인우대 무료승차권'으로 다니신다. 심지어는 스님이 기거하시는 방의 구들장이 내려앉아 보일러를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이 됐지만 보장사 관계자들은 고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구들장 고칠 돈이 있으면 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을 위해 쓰라는 엄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스님의 이런 검소함은 계율을 중요시하는 데서 비롯됐다.

"스승이신 관응스님은 속가의 친삼촌입니다. 관응스님께서 늘 말씀하시길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인과의 도리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가장 잘 따르는 것이고, 어떤 원이든 성취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인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원인이 좋은 결과를 낳는 법입니다. 선인선과(善因善果)의 법칙을 무시하고서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교육뿐입니다.

하지만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으로는 안됩니다. 반드시 인성교육이 뒷받침돼야 하지요.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부처님 사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불교대학원대학은 그 근간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고등학생 불자를 양성하는 것 못지않게 학생 불자를 키워낼 지도자들이 자질을 갖춰야만 부처님 법에 따른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덕해스님이 계신 방의 책장 곳곳이 비어 있는 것이 눈에 띄어 그 이유를 여쭈었더니, 그동안 소장하고 있던 3천여 권의 책을 모두 보문중·고등학교에 기증하셨다고 했다. 그리고는 여자 중·고등학교도 육성하고 싶다는 계획을 밝히셨다. 여학생 포교아말로 여성불자의 힘을 키우는 것이요, 불자 여성인재양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계획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에 욕심을 내지 않으니 세상이 나와 다툴 일이 없을 것이요, 이심전심이면 모두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순간 '염화미소(拈華微笑)'가 떠올랐다. 부처님께서 영산(靈山)에서 설법을 하실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니 그 뜻을 아는 자가 없었는데, 오직 한 사람 가섭존자만이 그 뜻을 알고 미소를 지었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깨달은 내용을 언어나 문자를 매개로 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것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어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모든 일이 언어와 문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가시적 결과가 없으면 평가받지 못하는 세상. 그런데 덕해스님은 오히려 거꾸로다. 마음만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일까. 그 마음을 어떻게 세상과 융화시킬 수 있다는 것일까.

오후 5시가 넘었는데도, 아스팔트 위는 해가 중천에 떠있는 것처럼 환했다. 보장사 입구에 장승처럼 서있는 커다란 소나무 네 그루가 시원스런 하품을 하자 강아지 한 마리가 컹컹 짖어댔다. 내 뜻을 세상에 이해시키라는 것인지, 세상 뜻을 이해하라는 것인지…, 스님의 마지막 말씀은 여전히 화두로 남았다. 하지만 확실하게 본 것은 있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겠다'는 스님의 교육철학이었다.

글=한명우 기자 mwhan@buddhap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a.com



◇남골당 내부를 소개하고 있는 덕해스님. 스님은 사회회향을 위해 남골당을 건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포교가 곧 수행" 50년동안 매진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자님은 무엇을 공부하셨습니까."

내친 김에 3년 된 서당개처럼 만용을 부렸다.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이에게 무엇을 내놓으라 합니까."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다. 흔히들 말하는 수행과 공부, 온종일 화두 들고 참선하고, 또는 경전 속에 파묻혀 공양시간을 잊기도 했던 그런 말씀을 기대한 질문이었지만 선문답이 되고 보니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바로잡습니다

본지 366호 12-13면에 나온 송암스님은 죽림정사 조실이 아니라 주지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설곡스님의 스님이야기 지월스님



불교수행의 목적은 지혜의 완성과 자비의 실현에 있다. 지혜의 완성은 자신에 관한 문제이고, 자비의 실현은 타인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다. 지혜와 자비가 둘인 듯 하지만, 사실 그 둘은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처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한국불교는 대승불교를 표방한다. 본래 대승이란 자신의 분제인 깨달음보다 다른 이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자비 실현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특색이다. 그래서 대승불교를 자비의 상징인 보살중심 불교라고 하는 것이다. '성불을 한 생 늦추더라도 중생교화에 내 모든 것을 바치리라'고 서원하는 것이 대승수행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의 실현보다 오히려 깨달음에 더욱 치중하는 감을 주는 것이 오늘날 한국 불교의 현실이다.

보살도를 실현하는 대승수행자는 권위적으로 군림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접받으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이다. 모든 생명의 존재를 인정하고 보살펴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자들이다. 자비실현을 서원하는 수행자들은 그 삶 자체가 이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안을 만한 관용과 어떠한 생명도 지극히 존경할 수 있는 겸허함이 수행으로 다져져 있어야 대승수행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승수행을 주장하고, 겸손을 애써 익히려 노력하고 있는 오늘의 나를 있게한 마음속 영원한 스승 한 분이 있다. 그 분은 일생동안 한 번도 명예나 권력에 눈길을 주지 않았고 대중의 수행을 위해, 불법을 위해, 새로 출가한 수행자를 위해, 자신을 송두리째 헌신하고 살다 가신 수행자다. 한번도 큰소리로 대중을 꾸짖어 통솔하려 한 적이 없고, 한번도 대중을 원망하여 도량을 이끌어 가려고 해본 적 없이 주지 소임을 사신, 보살 같은 스승, 그 분이 바로 지월(指月)스님이다.

지월스님을 처음 뵈온 것은 60년대 중반 해인사에서였다. 그 때 스님은 해인사 선원의 선덕(禪德)으로 계셨는데, 해인사 비상종회에서 해인총림이 결성되자 스님께서 주지에 선임되셨다. 스님은 주지소임을 맡기 전이나 후나 조금도 다름없이 생활하셨다. 나는 그때 해인사에서 행자생활을 다시 하고 있었다.

스님께서는 매일 도량을 여러 바퀴 도는 것으로 당신의 정진을 삼으신 듯했다. 손에 봉투를 하나 들고 도량에 버려진 휴지나 관광객이 버린 담배꽁초를 주어 모으는 것이 일과였다. 그러다가 도량을 급하게 뛰어가는 사미나 행자들을 보면 으레껏 스님은 그들 앞에 나타나시곤 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최상의 예를 다하여 허리를 급히고 머리숙여 절을 하셨다. 그 당시 나도 스님과 도량에서 마주치기를 수없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엉겁결에 머리 숙여 절하고 일어서 보면 스님은 여전히 깊숙이 머리를 숙이고 계셨다. 두번, 세번 머리를 숙였다 들었다 해도 스님은 머리를 숙인 채로 얼마나 공손하게 서 계신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일이 어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몇번을 만나더라도 만날 때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 인사를 하셨다.

그리고는 자상하게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 보살이 무슨 일이 그리 급하여 달려가십니까? 부처님 제자가 되려면 위의가 점잖아야 합니다. 그리 급하게 뛰어가면 화두가 챙겨집니까? 행동이 차분해야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스님의 말씀은 계속되었다. "한국불교의 운명이 스님의 두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어려운 일을 어금니를 지긋이 물고 참아야 합니다. 내가 스

매일 도량내 휴지·꽁초 주워
언제 어디서나 인욕·下心

님에게 한국불교의 장래를 특별히 부탁합니다."

스님께서는 진정으로 한국불교의 장래를 염려하시고 모든 후학에게 그것을 간곡하게 당부하셨다. 그 때 나는 그 '특별히 부탁한다'는 말씀을 듣고 나에게 무엇인가 장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싶어 스스로 은근한 기대를 가지기를 여러 번 하였다. 그러나 나중에서야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특별히'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특별히 부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대에게 '특별히'가 아니라, 스님께서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부탁한다는 것이었다.

어쩌다가 대중이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언쟁이 생기면 당신이 제일 먼저 일어서서 대중을 향해 절을 하고, "그것은 소승의 불찰입니다. 소승이 잘못한 것입니다. 내가 덕이 없고 수행이 부족해 그러한 것이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참회를 하셨다. 그러면 아무도 더 이상 언쟁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인욕정진과 하심(下心)하시는 스님에게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던 것이다. "대중스님네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고래등 같은 지붕 아래서, 거울 같은 장판 위에서, 백옥 같은 쌀밥을 먹으며 해탈을 위해 정진하는 우리가 공부말고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대장부 살림살이가 이만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계속)

구미 영명사 주지

TrekSta

고마운 분들께 사랑을 선물하세요

불심으로 가는 그 길에
언제나 자비로가 함께 합니다!



자비로 제품특징 남·녀 공용 225~265㎜

- 천연가죽 뉴벅의 사용으로 착화감이 뛰어남
- 하이퍼그립의 사용으로 미끄럼방지 및 접지력 탁월
- 특수방수 처리
- 스토퍼를 사용해 워킹시 발의 안정감을 줌
(스토퍼 고정용자석부착으로 착화시 더욱 편리해짐)
- 통기성이 뛰어난 고급삼베 인솔 사용
- 가볍고 편안해서 스님 및 불자들의 신행에 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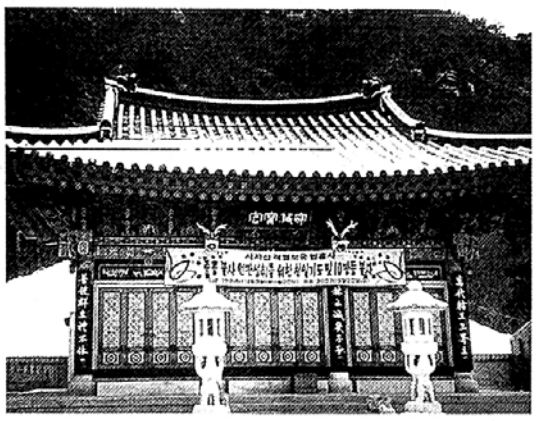
전국 르까프 매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본 사:02-320-0602~3 유통지점:02-320-0795 동서울지점:02-320-0622
남서울지점:02-320-0781 대전지점:042-487-9602 호남지점:062-511-8377
영남지점:051-309-7122 대구지점:053-964-5476

성불화-자비로

Only One Number One
㈜트렉스타
www.treksta.co.kr
TEL: 051-309-3663(代)

절에서 건져올린 명상 에세이





적멸보궁 가는 길 이산하 글·사진

'무엇엔가 들키면서 가는길' 이 적멸보궁길

"책 곳곳에 담긴 詩수천편 덤으로…"

"적멸보궁 가는 길은 내가 두엇을 '찾으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무엇에 '들키면서' 가는 길이었다. 길 위에서 타인의 발자국에 들키고, 지우지 못한 내 발자국에 또 들키고, 뾰족한 돌부리에 모서리 같은 내 마음이 들키고… 자꾸만 무엇을 찾아 의미를 부여하려는 나 스스로에게 들킨다"

시인 이산하 씨가 불교 최고의 성지로 꼽히는 5대 적멸보궁과 3보 사찰, 3대 관음성지를 둘러보고 쓴 명상 에세이집 〈적멸보궁 가는 길〉(이룸)을 펴냈다. 지난해 겨울부터 올해 봄까지 '부산일보'에 실었던 글들을 다듬어 묶은 것이다. 책은 지은이가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있다는 적멸보궁과 3보 사찰인 통도사, 송광사, 해인사, 3대 관음성지인 홍련암, 보문사, 보림암 등의 현장을 찾아가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정작 시인은 문득 떠오른 충동에 기대어 이리저리 발길을 옮긴다. 섬진강가를 걸어가다가 강물에 떠내려 온 통나무를 보고 팔만대장경 경판을 떠올리며 해인사로 발길을 돌리는 식이다.

거대한 눈썹바위 아래 마애불이 새겨진 강화도 보문사, 머슴부처와 누운부처 등의 신비를 간직한 화순 운주사의 풍광과 절집마다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 천진난만한 스님들과 아이들의 이야기, 절집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 폭의 풍경화처럼 소담스럽게 담겨 있다. 그가 본 장면 하나. 부처님의 '진짜 사리'가 '진짜' 묻혀 있다는 양산 통도사 금강계단 앞에서 노스님 한 분이 아이들의 질문에 열심히 답하고 있다.

"스님 저는요, 금강계단이 금빛으로 칠한 돌계단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 금강계단은 스님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계를 주는 곳이란다" "우와! 스님이 되면 개도 줘요?" "'계'란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아니고 스님들이 지켜야 할 모든 행동규칙을 뜻하는 것이야" "에이, 난 또…." 아이들이 스님 설명을 듣고는 모두 까르르 웃는다.

벚꽃, 동백꽃, 사과꽃 등이 만발한 사찰의 모습과 눈 쌓인 담과 탑 등을 찍은 사진들도 작가의 시선을 그대로 담아낸다. 지은이와 함께 몇 번의 여행에 동행한 안도현 시인은 "이산하 시인의 발걸음을 따라 절집으로 들어서면 보이지 않던 것들도 환하게 보인다"며 "산문집 도처에 고여 있는 수백 편 아니 수천 편의 시를 덤으로 읽게 된다"고 말한다.

지은이는 1987년 제주 4·3사건을 다룬 장시 '한라산'으로 필화를 겪고 절필했다가 11년 만인 지난 98년부터 다시 글쓰기를 시도하고 있다. 〈적멸보궁 가는 길〉은 그의 첫 산문집으로 시인의 마음은 여전히 갈래갈래 떠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값 1만2천원.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프란츠 메트칼프 외



재택근무자가 아닌 이상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며 하루에도 몇 번씩 업무와 사람관계에 시달리게 된다. 만약 부처님이 나와 같은 월급쟁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미국에서 '직장 내 정신운동'을 이끌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종교학과의 프란츠 메트칼프 교수와 인도주의적 경영 이념을 기업에 전파해온 컨설턴트 갤러거 해틸리는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SPR경영연구소 옮김, 예지)에서 오늘날 직장인이 회사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 101가지를 유형별로 나누고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그 해결책을 찾는다.

101가지 직장상황 경전통한 해결법

지은이들은 '부처님이 오늘날 현신해 끔찍한 상사를 만나게 된다면 그 상사를 어떻게 대할까?' '부처님은 거짓말 하는 동료를 어떻게 대할까' '부처는 어떻게 회사의 재산을 관리할까' 등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별 대처법을 화엄경과 법구경 등의 경전을 통해 제시한다.

1부 '직장에서 지혜로운 인간관계 형성하기'에서는 까다로운 사람을 상대하는 법과 역동적인 그룹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2부 '일터에서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은'에서는 깨달음을 실천하는 방법과 직장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3부 '밝은 일터 만들기'는 밝은 일터의 필수조건과 직원관리, 조직문제와 헤법 등을 제시한다.

값 1만5백원.

부처님 손바닥에서 30년

쿠치키 다케도 지음, 김해석 옮김



오랜 참선과 명상 끝에 마침내 마음의 문이 열린 쿠치키 다케도 씨의 영적 수행 일기 〈부처님 손바닥에서 30년〉(김해석 옮김, 해누리)이 나왔다.

지은이가 30여년에 걸쳐 기록한 수행 일기를 엮은 〈부처님의 길〉,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손바닥〉이란 세 권의 책을 한 권으로 묶은 것이다.

지은이는 다카하시 신지 선생을 만나 수행을 시작하고 체험한 놀라운 일들, 그리고 아라한의 경지에 올라 영적인 능력을 통해 보고 들은 사건과 심리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깨달음의 경지가 무엇이며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줄 뿐 아니라 수행에 임하는 자세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오랜 참선 · 명상…저자의 영적 수행기

지은이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유체이탈 현상이나 죽은 사람과의 대화, 전생여행 등과 같은 기이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매 순간 자신을 반성하고 마음을 정화해 영혼의 단계를 높일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여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한다.

8장 '반성노트'에서는 자신의 성급한 마음으로 인해 수행이 힘들었던 경험과 이를 고치기 위한 노력을 소개한다. 또 마음속에 반성거리가 나타나면 노트에 기록하고 매일 반성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한다. 값 8천원.

출판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그대의 목은 우리의 보배

사명당기념사업회 엮음



사명당기념사업회(회장 오재의) 회원들이 2001년 여름 사명당 유적지를 답사한 순례기를 모아 책으로 엮었다. 회원들은 사명대사의 생가지인 밀양 표충사와 출가도량인 김천 직지사, 입적한 홍제암 등을 답사했다. 조영록 교수(동국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사명대사의 출생지와 입적지를, 원로 극작가 노경식 씨가 직지사를, 윤종현 교수(한양대 초빙교수)는 대사가 승병을 훈련한 건봉사 답사기를 썼다. 또한 재일 교포 수필가인 이유한씨의 '해인사 석장비와 영장의 수난사'를 실었다. 값 7천원.

삶의 여백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생각

금강 글/그림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주머니를 비워두어야 한다. 욕심과 집착으로 가득 찬 주머니에는 행복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깨달음을 추구해온 작가 금강의 수묵화와 글이 담긴 〈삶의 여백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생각〉(느낌이 있는 책)이 나왔다. '주머니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 오면' 이라는 부제처럼 그림마다 욕심없는 무소유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은 지은이의 바람이 담겨 있다. 값 8천원.

스테디셀러 다시읽기

역사로 읽는 원효

신라의 고승 원효(617~686)는 민담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정도로 일반인에게 익히 알려져 있지만 정작 역사 인물로서의 원효의 삶과 사상은 낯설기만 하다.

김상현 교수(동국대 사학과)는 〈역사로 읽는 원효〉를(고려원) 통해 일반인이 알고 있는 피상적이고 신화적인 원효와 전문학자들이 연구하는 난해하고 심오한 원효 사이의 간격을 좁히고 있다. 이를 위해 지은이는 원효의 전기 자료를 세밀하게 살피고, 그가 살았던 7세기 신라사회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의 사상이나 가르침을 굴절 없이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 논문을 참고했다.

전 8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원효의 일생을 연대기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깊은 신심을 키우며 선지식을 찾던 젊은 시절,



일생 연대기식으로 기술
불교사상 통합·체계화
깨달음·환속 인물됨 밝혀

깨달음과 환속의 과정을 거친 후 학문에 정진하는 모습 등을 통해 그의 진정한 인물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위대한 학자로서 불같은 열정과 냉철한 비판력과 정확한 논리, 탁월한 문장력 등을 갖추고 수많은 저술을 하였으며, 그러한 안목으로 불교사상을 새롭게 통합하고 체계화시켜 고금의 오류를 바로잡았던 독창적인 사상가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지은이는 원효를 단지 천재적인 존재로 미화시키기 보다는 부단히 노력하고 정진하는 인물로 그리고 있다.

책 뒷부분에는 원효의 어록을 실어 여러 문헌 속에서 그가 설파하고자 했던 진정한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1987년 2월부터 28회에 걸쳐 월간 〈금강〉에 연재했던 글을 모은 이 책은 1997년 전국교사불자회가 선정한 '청소년들을 위한 불교추천도서'에 포함되기도 했다. 1994년 고려원에서 출간돼 현재 절판되었으나 곧 재출간할 예정이다. 값 7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화(Anger)	틱 낫 한	명진출판사
2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류시화	김영사
3	보왕삼매론강의	김현준	효림
4	극락은 있다	관정	붓다의 마을
5	영가천도	우룡	효림
6	성철스님 시봉이야기1	원택	김영사
7	회색고무신	윤청광	시공사
8	참선교육1	현담	도서출판 선
9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10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석성우외	민족사

도서 안내:(02)737-0695

깨달음으로 가는 외길
그곳엔 부처도 갈 수 없다
물리학 원리와 화엄경, 절창 禪詩와 선문답을 아울러 깨닫지 못한 누구라도 절대 경지를 엿보게 하는 책.
초판 자음 | 값 15,000원 현암사 전화 : 365-5051~6, 팩스 : 313-2729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기업 - (주)한국자연과학
가시오가피 처음부터....
잘알고 먹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강"
그 소중함을 위해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주)한국자연과학이 늘 함께 합니다.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 훈 구 대표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
입니다.
전화상담 및 무료자료신청
TEL:(02)2272-4900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 가시오가피
100% 국내산 토종 가시오가피를 사용
국내 최대
가시오가피 재배지"함박재 농장"
- KBS, MBC 뉴스 보도 -
가짜가 많아
오해도 많은 가시오가피
이제,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20년을 달려온
(주)한국자연과학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가시오가피는
환경부 지정 야생보호식물
입니다.

사찰터(급)안내
• 위치 : 불광동에서 10분거리 북한산 줄기
• 자연녹지 : 4000평 산세수려
• 평당 20만원(시세이하 가격)
02)991-6666
011)781-9979

사찰 (터)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삼선면
• 면적 : 40,025평
• 평당 : 5,000원
055)673-0071
011)873-7079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무주 적산면
• 땅 : 530평, 황토방(신축 2년) 법당1개, 방 2개
•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약 10분거리
• 기도처소 有
• 경관이 좋고 승이버섯 나올정도로 산세수려 환경 청정
• 가액 : 3천만원(절충가)
017)430-1911
063)324-1911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마을 끝집
• 대지 : 73평
2층 건물 37평, 1층 요사채 2층 임법당
• 가액 6천 5백만원(융자있음)
※ 지하수, 뒷편공원, 교통편리 비구니 스님 연락부탁 거의 새집
061)762-2630

사찰(터)안내
• 위치 : 전남 목포대학교 부근 승발암
• 평수 : 849평
• 가액 : 1억 3천 전(田), 밭
011)9435-5995
※ 특징 : 도청 · 국제공항 20분거리

암자 안내
• 위치 :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 163
• 건물 : 법당 10평 요사채 방 3개 관음전, 삼성각
• 가액 : 보증금 100만원 월 18만원 시설금 700만원
042)257-4339
018)428-433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부근
• 포교원 30평 법당 방 2개 주방 거실 시설완비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 시설 물품 답사 후 절충
051)521-0368
011)850-2779

사찰 터 안내
• 위치 : 충남 금산 진산면 (대전에 20분거리)
• 대지 : 전, 밭, 임야 합 8746평 도로 전기 공사 완료
• 육각정(목조) 한동 주거용 컨테이너 1동 약수터(옹달샘) 및 연못
가액 : 평당 3만오천원
011)826-6888

사찰 급 안내
• 위치 : 노원구 당고개역 3분거리
• 부지 : 약 300평
• 평수 : 건물 45평 법당 20평 방 3개, 차량 주차 5대
• 가액 : 1억 7천
011)9756-4845

선방하실 분
• 위치 : 부산 금정구 남산동 산복도로
• 보증금 : 4천만원, 40평
• 월세 : 300,000원, 권리금 조금
• 선방 내부 인테리어 최상급
016)296-5822
017)551-1480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 법당겸 요사채 40여평 산신각 7평
※ 종중땅임(300여평 사용) 절앞소방도로 확정되었으므로 내년이면 차량진입이 가능
• 가액 : 9천 5백만원
011)9770-6598

사찰 안내
• 대지 192평
• 요사채 70평, 법당 20평
• 방 6개, 욕실 2개
• 주방 3개, 거실 3개
• 법당단청 했음, 미륵부처님 모셨음 산새 수려함 큰스님 병환으로 급매
• 임진강 앞이 보이고 자유로 앞에 있음
• 가액 3억 2천 답사후 결정
031)952-7905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구인 · 구직 규격 50,000원 / 일반업체 규격 7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송현면 화룡산 **용님선원**
문의 : 055)834-1115~6
016)849-3858

배우자 구함
가축인공수정소를 운영하고 있는 41세 미혼남성입니다
평생을 불심으로 함께 할 미혼여성을 원함
018)415-0086

아버님께서
생사를 몰라
걱정하고 계시니
연락 부탁합니다
이홍욱 氏
052)249-0258

제의식, 불공 등 임시로
스님 필요한곳
은 **연락**바랍니다
051)462-7374
018)523-7374

배우자를 구함
한국과 일본에서 포교원을 운영중인 포교원장이며, 평생을 포교사업을 함께할 45-52세 불심이 있는 여성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011)814-6677(운경)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스님)
나이 : 50세~60세사이
불교경전 및 교리 강의 가능한 분
011)738-0338

포교당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광주광역시 광주공원내에 있는 태흔사
062)673-6556

◇ 구운 마늘환 ◇
- 100% 토종 육쪽 마늘 -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효능
▷ 심안피로 / 정력강화
▷ 간기능 활기찬 개선
▷ 혈압/혈당치■ 낮추고 장 변비 개선
▷ 손발냉증, 피부 고와짐
▷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375-7575

영남불교대학·관음사
▸ 행자(예비스님)모집 - 조계종
- 행자전문도량 - 행자원 (시내 또는 산중)있음
- 엘리트 스님양성 목표 (40세 이하, 고졸이상)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 문의 011)9852-0075(총무스님)

▸ 납골당
- 최신의 시설로 영구보존
- 설, 추석 제사천도 및 기일 축원 해 드림

▶문 의
대구 053)474-8228
www.TVbuddha.co.kr

동성불교사
개금 · 천불 · 범종 · 동불전문
代表 李相萬 법명:보환
TEL : 031)575-2532
FAX : 031)575-2647
자 택 : 031)563-8733
031)563-8771
H·P : 011)255-3286

각종 행사 문안 작성
설법 · 법문 · 발원문
권선문 · 축사 · 인사말
출판제작(법요집)
글 밭 농 원
전화 02)312-6636
팩스 02)393-6606

법당 및 공양주 보살 운전기사 관리보살 모십니다
031)533-4405
011)261-4405

수려한 산새와 공기좋은 도량에 공덕을 쌓으실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011)545-2375

영가천도 책자 무료보급중
영험담수록 석일선스님의 100% 영가천도묘법수록
가정불화, 자녀문제, 사업부진 원인모를 불치병, 난치병 등 이중에 50~60%이상이 영가의 장애로 인한 현상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지정도량 **성거사**
041)567-6820/041)567-6822

녹 차 판 매
※ 지리산 화개 야생수제차
※ 사찰 보시 가격 공급
차만들기 교실
■ 차만들기 실습 견학
■ 차를 만들어 갈 수 있음
Tel : 055)883-9321
영목다전(지리산 하동 쌍계사 근처

공양주보실님 모십니다
▷ 성북구 정릉 4동 보림사
02)914-6187

◇붓다쇼핑닷컴◇
인터넷 불교용품 전문쇼핑몰
마아(大) 만다라 액자 및 족자
유명작가 진품 달마도쇼핑몰
금강경백자등 도예 광고방송
불교음반 불교예술 불교정보
홈페이지 제작, 관리 및 홍보
www.BuddhaShopping.com
연락처 0505-882-3456
붓 다 넷 코 리 아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50~60세
02)2234-3310
관 음 사

아이를 보면서 생활하실 보살님 구합니다
▷ 천안 보현사
월 급여 상담 후 결정
041)554-8486

49재 천도재 시다림 안택
각종 의식에 청하시면
전국 어디든 가겠습니다.
영산재 이 수 **스님 입니다**
(무보시 상주한 사찰을 찾습니다)
사주 명리학도 연구합니다
053)751-1176
016)857-4500

♣ 보 리 수 ♣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 80호
전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연꽃그림에 부처님 말씀을 담아드립니다.
한지에 수묵담채화(미표구)
크기 : 소 · 중 · 대 · 특대 병풍 부채
각종 보시용 · 선물용 · 봉안식용
전화주문후 계좌송금 확인 즉시 작업착수 등기 송달
● 입금계좌 : 우체국 703496-02-083632
● 견본참조 : www.jeongpung.co.kr
연꽃 053)381-5698
화가 018)588-5698

독거꼽추인분들께
부전 비구니 스님과 신심이 있는 꼽추인 보살님을 모십니다.
신체상 변화를 보신 후 부탑, 불사사 등에 동참하실 분 모십니다
043)423-182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오산	• 위치 : 부산	• 위치 : 논산
• 법당 : 30평	• 법당 : 23평	• 법당 : 20평
• 요사 : 60평	• 요사 : 50평	• 요사 : 34평
• 부지 : 330평	• 부지 : 166평	• 부지 : 187평
• 가액 : 4억	• 가액 : 3억 7천	• 가액 : 1억 2천

※ 전국사찰, 포교당다량보유. 양도,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인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무보살 모십니다
▷ 파주 약천사
031)942-1252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 877-7514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계룡산 국제선원 무상사
042)841-608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강릉 조용한 기도 도량
나이 : 40~50대
033)661-5878

사찰사무원 구 함
041)673-1888
041)673-3222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에서 1시간 20분거리 원주 새말 IC에서 10분거리
- 건평 : 약 100평, 대웅전 30평 요사채 큰방 5개, 산신각(5평)

남골당 100개 향나무 시설 완비
- 특징 : 산세좋고, 기도처로 최적 사용가능 부지 약 1000평
- 가액 : 1억 5천(전세)

오래계실스님을 원합니다
011)771-5597
033)345-5597

귀 대창불교건축 귀 대 창 목 재
- 사찰대웅전 건축
- 고건축 시공
- 문화재 복원개보수 업체
- 한옥(전통한식)
- 황토방 시공
- 불사하실 스님 상담환영

공장 054)781-4989
H P 016)768-4324
011)246-2210

- 태백산(울진, 봉화)지역의 적송 춘양목
- 연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치
- 기둥 : 18자 : 1자 - 1자 8치
- 도리 : 20자 : 1자 - 1자 8치, 24자 : 1자 - 7치
- 보갑 : 24자, 30자, 36자, 42자 : 1자 - 2자까지

[주]대장종합개발 이종봉 합장

만 58세 평생 동반자 이면서 남은 여생 도반이 되어 주실 분 찾음
신심있으면서 고향이 이북이라면 좋겠습니다
011)775-8070

불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구함
인덕노인복지관
02)385-8505~6

사찰 터 안내
- 위치 : 서해안 고속도로 해미 IC에서 5분거리
- 지목 : 산
- 특징 : 지연경관수려 중교부지로 적합함. 호수가 내려다보임 덕산온천 인접
- 평수 : 23000여평 평단가 : 12000원

041)667-7177/7277
011)409-6511

토굴 안내
- 충북 단양읍 소재 유진 빌라 6동 306호 14평 3층

개인적인 학문연구나 건강휴양처로써 나만의 공간이되어 걱정 풀어놓고 편히 쉴 수 있는 토굴이라 생각하고 마련할 스님이나 불자님은 연락바랍니다. 투자의 가치가 있는 곳 입니다.
- 가액 2100만원

011)9770-1581

약 사 암
원인모르게 병고에 시달리는분 가정에 우환이 많은 분들 상담바람
02)796-8514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 경기도 일산 소재 (주엽근교)
- 법당 : 100평 • 요사 : 방 6개
- 7층 건물 중 3층
- 보증금 2,000 월 15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 위치 : 수원시내
- 대지 : 90평
- 법당 : 40평
- 요사 : 70평
- 양도가 : 3억 3천
- 산세좋은 도심 사찰 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암자 별장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 대구 포항길 우회 도로에서 900m 영천시에서 가까움
- 대지 : 110평, 건평, 68평 2층
- 가액 : 1억 6천

011)529-3996
아간 054)337-3996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백두대간
- 상태 블럭조 17평 집 1동(재래식) 1991평(실사용평수 4000평) 불사할 수 있도록 터 잘 되있음 전망좋고 좋은터
- 가액 : 5천 5백만원(시세보다 쌈)

011)9542-2537

사찰 터 안내
- 주위 경관 수려하여 철터로서 최상급 임
- 경북 영주시 소재(시내에서 10분 거리)
- 전 : 약 730평 (실평수 1천평 내외) 현재 1차공사로 터 조성과 전기+지하수관정, 시공한 상태 임
- 가액 5300만원(절충가능)

011)9770-1581

사찰 안내
- 위치 : 화성시 팔탄(도로근접)
- 법당 : 23평
- 산신당 5평, 요사채 70평
- 부지 : 240평
- 가액 : 3억 3천 절충가능

- 관심있는 분만 전화요망 -
011)785-5670

장수건강
돌침대 보 大 할인
잠자리 바꿔 보세요 - 건강이보입니다
좋은 잠자리가 보약입니다.
(사계절용, 월 전기료 8,000 ~ 12,000원선)
▲싱글보료
02)424-9427
장수건강온돌(리빙스톤)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육모정 근처 • 대지 : 1200평 중 종교부지 : 300평
- 전 : 700평 [하천부지 : 300평, 주택지 : 283평 사용가능]
- 대웅전 : 20평 • 산신각 : 4평 • 독성각 : 2평
- 요사채 2동 방 4개 조립식 건물 • 회의실 : 13평 1동
- 현시세 신축건물 매매가격 3억만원(절충가능)
- 불사 할 수 있는 도량, 스님 및 법사님 환영

063)625-9992 011)9642-8833 011)9642-1202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정선(영월근교)
- 임법당 : 방 3개 동각을 인접해 경치 좋음
- 가액 : 3천 2백만원(절충가능)

사찰 (터) 안내
- 2080평 준농림지 중국관정 대법사께서 인정하신 명당터
- 가액 : 평당 3만원

033)378-5713
011)806-4867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함양 (지리산)
- 부지 : 605평, 황토한옥 32평
- 요사 9평, 탑둘레 25m
- 연못, 남향위치, 밭 244평
- 가액 : 1억 3천 (절충가능)

055)963-4965

암자 안내
- 월세 1년 250만원
- 임법당 신축
- 경북 구미 대구 김천 왜간, 약목면 소재

017)813-9126
주인직접, 인수도 가능함

토굴 구하실분
- 대지 200평
- 법당 14평
- 요사 14평
- 삼성각 5평
- 가액 : 6500만원

011)9302-5632

탈 종 공 고
- 주 소 : 전남 영광군 영광읍 교촌리 산 5번지
- 사찰명 : 성학사 • 법 명 : 진심행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수행 할 수 없어 탈종함을 공고함

대한불교 미타종 총무원장 법하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북 왜관시내 중심가
- 건물 : 2층 건물 중 2층 (70평, 방 2, 주방 1)
- 시설완벽, 포교당최적지, 즉시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822-9622

사찰 터 안내
- 위치 : 경북 예천 소백산 기슭
- 정남향이고 포장국도를 접할 수 있고 일차 조경 축저 지하수 관정 전기시설 완비
- 면적 : 약 2000평 준농림 전용 가능
- 평당 : 3만 5천만원

011)9576-8019

사찰 터안내
- 위치 : 경기도 여주 IC 10분
- 전원형 최고 명당지 토굴 사찰터 (풍수지리 전문가 환영)
- 대지 603평 조경완비 1억 9천만원
- 대지 314평 조경완비 1억 4천만원 건물 2동

(주인직거래)
018)315-3080

사찰 (터)안내
- 위치 : 서울에서 1시간 30분거리 횡성 경찰서 옆
- 산세좋고 기도처
- 건물 : 1층,2층 80평
- 대지 : 농지 합 1600평
- 요사채 기초시설완비 120평 도로옆 • 가액 : 3억 5천

011)771-5597
033)345-5597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부곡온천(2분거리)
- 대지 : 670평 • 법당 : 20평
- 산신각, 용왕각 7평 요사채 30평, 신요사채 20평
- 금액 : 1억 7천만원
- ※ 산세좋은 영험기도 도량

055)521-2028
017)586-3280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덕산 옆
- 평수 : 법당 관음전 7평 임법당 20평(새건축)
- 대지 : 640평
- 70년 전통의 물좋고 산세수려, 포장도로 완료, 최신식 시설 완비
- 가액 : 1억 8천만원

011)401-5206
041)337-1206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70평 • 법당 : 15평
- 요사 : 25평 • 가액 : 2억 5천 만원

※ 전국 사찰 표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신암동
- 법당 : 2 · 3층(약 50평)
- 특징 : 삼존부처님, 문수보살님 그외 여러 부처님 모심(원력한 법당 내부시설)
- 가액 : 보증금 5백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별도 : 6천만원 (현장방문 후 가액조정)

성 불 사
011)398-9807
053)957-9551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청송읍 교리 주왕산 기슭
- 면적 : 대지 244평
- 건물 : 목조 요사 옥 5칸 접집 임법당 부속 건물 2동 정남향 네모 반듯하고 마당까지 차진입
- 집 앞 시냇물 졸졸 비구니 수행 도량 최적지
- 가액 : 3천 5백만원

053)784-8685

사찰 (터)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 통영간
- 부지 : 밭 600평, 중심에 대지 150평 + 계곡부지
- 건물 : 신축한옥 30평 (큰방 2, 작은방 2, 큰마루, 부엌, 화장실) 외 창고 12평
- 특징 : 지산이 높고 좌측에 계곡이 깊어 사철물이 철철 흐름 앞에 삼면이 비다로 확터어 아주 좋음
- 가액 : 3000만원(절터로 명당)

017)844-9448
016)207-5600

암자용도 전원주택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근교, 대구서 50분 ~ 1시간
- 부지 : 밭 600평, 중심에 대지 150평 + 계곡부지
- 건물 : 신축한옥 30평 (큰방 2, 작은방 2, 큰마루, 부엌, 화장실) 외 창고 12평
- 특징 : 산세수려하고 마당앞엔 사철 흐르는 청정계곡이 있고 마당까지 큰차진입
- 가액 : 7800만원(실제공사비)

051)337-5156
011)9857-5156

사찰암자별장지 전원주택지
- 물가에 인접, 도로에 인접, 정상에 샘물이 가뭄에도 솟구침
- 준농림지 2746평
- 가액 : 1억 5천만원
- 산세는 병풍처럼 입구까지 감싸고 있음!

꼭 하실 분 연락바람
017)765-5846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 부지 : 약 100평
- 건물 2층 2동
- 법당 20평
- 특징 : 범종각 9층석탑 텃밭 전통사찰 법당
- 가액 : 4억

011)9775-1156

포교당안내
- 위치 : 동작구 상도 3동 7호선 전철역 1분거리
- 시설비 1,300만원 보증금 300만원 월 30만원
- 즉시 입주 가능

02)827-0098
02)826-1638



◇동학사 대웅전



◇마곡사의 '냉잡채'

사찰·음식 영문판 출간

서울·경기·강원·충청지역서 77곳 선정
역사·건축양식·탱화서 조리법까지 소개

사진작가 이정애(57)씨가 국내 전통 사찰의 모습과 각 사찰을 대표하는 음식을 생생한 사진과 함께 영문으로 소개한 책 〈Korean Temples & Food〉(JungLee출판사 刊)를 출간했다. 이 책은 20여년간 뉴욕을 무대로 활동해온 이정애(계원예술대 겸임교수)씨가 3년여에 걸쳐 전국 1백여개 사찰의 풍광을 렌즈에 담아 만든 것이다.

〈Korean Temples …〉는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등 4개 지역에서 엄선한 대표적 사찰 77곳의 역사와 연혁, 건축양식, 불상, 불화, 단청 등을 사진과 설명으로 소개했다. 또 각 사찰마다의 대표적 음식 하나씩을 골라 재료와 조리법도 실었다. 특히 책 말미에는 각 사찰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고 주소와 연락처를 일목요연하게 곁들여 외국인들이 원하는 사찰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상원사의 우엉김치, 신흥사의 숙주나물, 법주사의 무국, 옥천사의 김부각 튀김, 흥국사의 고추찜, 선암사의 버섯 튀김, 범어사의 야채죽, 무량사의 미역 생떡국 등 다양하고 큼직한 사찰음식의 컬러 예술사진이 보기만 해도 군침을 돌게 한다. 특히 이 책에 소개 된 것들은 요리 연구가적 시각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국, 김치, 나물 등 실제로 사찰에서 해 먹고 있는 음식들이 대부분이어서 일반 대중들이 가정에서 식단을 짜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추천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욕망을 자극하는 음식문화가 강요되고 있는 이시기에 사찰음식이 던지는 메시지는 비단 채식뿐만이 아니다"며 "사찰음식은 절제와 검약, 담백 등의 음식문화를 형성하는데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애씨는 "다른 문화를 만나는 가장 유쾌한 방법은 바로 음식이라는 생각에 우리 사찰의 미각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었다"며 "외국인들에게 한국 불교문화를 알리는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2)516-8985

문화 담당= 김주일 기자 jkm@buddhapia.com



◇창작발레와 연극이 어우러진 손재현 무용단의 '에밀레종' 공연 장면.

현대 창작 발레·연극 한마당
불교무용극 '에밀레종' 공연

鐘에 녹아든 佛心·장인정신·恨 표현
딸바치 모정 갈등 장면에 진한 감동

월드컵 기념 문화 행사의 일환으로 창작 발레와 연극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한 편의 불교 무용극이 무대에 오른다. 불교포교 전문 무용단인 '손재현 무용단'이 28·29일 양일간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하는 창작 발레극 '에밀레종'이 바로 그것이다.

김흥우 교수(동국대 예술대학장)의 원작에 손재현교수(동국대 체육학과)가 안무를 맡은 '에밀레종'은 봉덕사 성덕대왕 신종(일명 에밀레종)의 주조 과정에 녹아 있는 불심이 주 내용을 이룬다. 이 작품은 현대 과학으로도 풀지 못하는 봉덕사 성덕대왕 신종을 만들어 낸 신라인들의 불심과 장인 정신, 그 속에 서려 있는 한과 넋 등을 현대 창작 발레로 표현했다. 특히 정아의 인신공양으로 종을 완성하려는 주물공들의 역동적이고 빠른 몸놀림은 눈여겨 볼만하다. 여기에 종불사에 딸을 바친 정아 어머니의 불심과 모성애 사이의 갈등을 애절한 몸짓으로 형상화한 장면은 관객들에게 진한 감동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손재현 교수는 "이번 작품에 대사가 있는 연극을 삽입한 것은 신체언어인 무용만으로는 관객들이 기획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극의 도입부에서 펼쳐지는 도량석 장면에서는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11명의 스님들을 출연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02)2260-3420

"불교미술사연구 교학적 접근 필수"

장충식 교수, '불교 몰라도…'에 일침

"불교는 몰라도 불교 미술사는 가능하다?"

지난 해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국보 112호 감은사지 동 삼층석탑의 사리장엄에 대한 보고서에서 "감은사지 동탑은 문무대왕의 사리를 모시기 위해 조성됐다"고 주장해 불교계의 반발을 산 적이 있다. 불교 미술사가들은 "일반 스님들조차 부도를 만들지 않던 시대에 재가자의 사리를 불탑에 봉안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교 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어처구니없어 했다.

이 같은 '해프닝'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장충식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박물관장)는 31일 중앙승가대학교가 '근대 이후 인문학에 나타난 불교관'을 주제로 개최하는 학술 세미나에 미리 제출한 주제 발표문에서 "오늘날 많은 미술사가들은 미술품의 형식이나 양식적 문제에만 집착한 나머지 조형 예술품의 발생과 전개에 관한 근본 문제를 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불교는 몰라도 불교 미술사는 가능하다는, 만용에 가까운 자신감을 지니고 있다면 미술사의 장래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한국 미술사학은 학문적 체계를 구축하기 보다 객관성이 결여된 주관적 논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함으로써 모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모순은 교학적 지식이 결여된 채 막연한 추정에 의한 자의적 해석을 전개함으로써 형식이나 명칭 문제 등에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 세미나에는 이밖에 허흥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임기중 동국대 교수, 윤이흠 서울대 교수, 신오현 경북대 교수가 각각 역사학, 어문학, 종교학, 철학의 불교관에 대해 발표한다. (031)980-7716 권형진 기자

'문화재 기능의 맥' 창간

전문분야 지식·회원동정 실어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회장 신응수)가 최근 창간한 반년간 잡지 〈문화재 기능의 맥〉(사진)은 협회에 소속된 문화재 기능인들을 위한 일종의 정보지다.

110여 쪽 분량의 〈문화재 기능의 맥〉은 현장에서 일하는 문화재 기능인들이 꼭 알아야 할 전문 분야별 지식과 문화재 상식 등을 실어 일반인들에게도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길잡이가 되기에 충분하다.

매호마다 특집과 '우리 문화재 순례' '문화재 탐구' '탐방' '우리 문화재 기행' '관련 단체 소개' 등의 기획물과 협회 소식, 회원 동정 등으로 꾸며진다. (02)3672-8803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아침에 창을 열고 내다보니, 첫 햇살에 앞산의 나무들이 황금빛으로 물든 가운데 향긋한 꽃내음이 코를 스친다. 요즘은 이 산 저 산 할 것 없이 온통 아카시 천지다. 온 산이 아카시의 흰 꽃으로 뒤덮이는 것을 보니, 산야에 아카시가 이렇게 많은 것을 새삼 느낀다. 겨울에는 나무껍질이 쩍쩍 갈라지고 메말라서 애처롭기만 하던 나무가 이렇게 흰 꽃을 활짝 피우니 대견스럽기도 하다. 다른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면 초봄에도 꿈쩍 않고 묵묵히 때를 기다리며, 새싹도 맨 나중에 움터 안타깝게 하더니, 때가 되자 꽃이 피어 산을 하얗게 뒤덮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카시 나무는 쓸모가 없다고 말한다. 기둥으로 쓰자니 좀이 슬고, 책상으로 쓰자니 못이 들어가지 않는다. 배를 만들기에는 너무 무겁고, 화목으로 때기에는 가시가 많다. 그래서 아무도 그 나무를 심고 가꾸려 하지 않고, 베어다 쓰려는 사람도 거의 없다. 결국 뽑아 버리려고 하지만, 어느새 자라나 산과 들을 덮고 있는 것이다. 아무 곳에나 잘 자라는 왕성한 생장력과 번식력은 놀라울 정도다. 쓸모는 적을지 몰라도, 우리 산이 단기간 내에 푸르름을 간직하는데 이 나무가 큰 기여를 한 것은 틀림없다. 나아가 요즘은 아카시 없이는 벌꿀이 채취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밀원(蜜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아카시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것은 부처님 오신 날에 때 맞춰 세상을 장엄해주기 때문이다.

초파일과 아카시

부처님 오시날 때맞춰
꽃 활짝피워 세상 장엄
소중한 날을 함께 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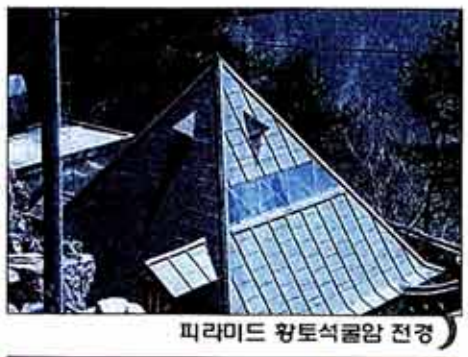
이 좋은 계절에 부처님이 오신 것도 고맙고, 다행히도 아카시 꽃이 활짝 펴서 그 소중한 날을 산천초목이 함께 축하해준다는 사실도 고맙다.

부처님 오신 날이 음력으로 4월 8일인 의미를 새겨본다. 우리 동양인은 사통팔달(四通八達)의 숫자인 4와 8을 좋아하는 것 같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벽암록에 나온다. 어느 제자가 조주성(趙州城)에 살아 '조주'라고 불리던 대선사에게 정체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조주는 어떠합니까(如何是趙州)." 120살이나 살아서 늙은 부처(古佛)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노련한 조주 스님은 슬쩍 이렇게 비껴간다. "조주성에는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 있지."

"조주,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는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조주성은 사통팔달 뚫려있다"고 받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어디 성에만 문이 있을까. 인간에게도 동서남북의 문이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이 점을 가르쳐주려는 게 아닌가? 마음에 걸림이 없이 한번 시원하게 살아보라고.

마음의 문을 열면 인간은 한없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 대한 공포가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큰 스승의 탄신 일을 맞아 우리도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용기를 배워야 할 것이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 막상 우리 자신도 함께 태어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초파일은 과거의 일이 아니며, 부처님만의 생일도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가 정신적으로 거듭 태어나는 날이다. 아카시 꽃향기는 오늘도 우리 모두의 정신적인 생일을 축하해주고 있다. ■문학평론가

1 2002년 맞이 6
만 국 역 리 학
보덕 지음
세계인이함께보는
9종운세풀이서
신국판
112쪽
값 6,300원
전국서점에 있습니다.
우) 339-834
충남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510
T. 041)867-4000
F. 041)867-4001
3 돌섬 정화사 8

본심·본성이 살아 숨쉬는 피라미드황토석굴암
- 여타 찜질방이나 황토집과의 비교 할 수 없는 힘의 세계-

피라미드 황토석굴암 전경

피라미드안 거실 및 황토 돔의 구조
본심·본성이 살아 숨쉬는 황토 +
소나무 참나무 장작과 구들 황토방 + 피라미드 에너지
피라미드 구조물
피라미드 형태의 공간 구조물이 지구 방위의 남북 방향으로 정확히 배치되어지면 그 공간 구조물 내부의 특정지점(바닥에서 꼭지점 3분의 1지점)에 주로 미지의 에너지 공간이 형성되며 이 미지의 에너지에 의해서 피라미드 내부에는 여러가지 신비한 현상(탈수 건조 현상 및 면도날 재생, 식물 생장 및 발아 촉진, 생체 치료 및 활성화 효과 등)이 발현
황토석굴암이란?
황토석굴암 생황토 40톤과 회오리방식의 구들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번 불을 지피면 10일을 가는 난방, 여타 찜질방이나 비교할 수 없는 힘의 세계에서 내몸의건강과 정신의 평화를 위해 피라미드 반원구 황토 석굴암이 내뿜는 강력한 에너지의 비밀에 귀 귀울여 보자.
엄청난 우주의 기운과 지기가 내 몸을 휘돌아 정화하고 재 충전 시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피라미드황토석굴암 구조
• 크 기 : 지름(내경) 380cm
• 벽두께 : 35-40cm • 높 이 : 210-270cm
피 라 황 토 시공 문의 017-585-6045 019-558-8356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마음의 불' 뇌성벽력에도 끄떡 안해

관욕·연등 밝히는 이유

문 부처님 오신 날에 절에 가보면 아기 부처님께 관욕을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연등에 불을 밝히는 의미도 알고 싶어요.

답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는데, 부처님께서는 과거 미래 현재를 한데 합쳐서 항상 그 날이 그 날, 오늘이 오늘, 영원히 인연의 줄을 끊지 않고 오고 가심이 없이 항상 오고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이 부처님 모습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형식으로 부처님 몸에 물을 끼얹어서 씻어 봐도 그것은 자기 몸을 닦느니만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항시 자기를 잊어버려서는 안됩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모두가 있는 것이지 자기가 없다면 아예 없습니다. 요만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를 잘 참작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모두 공심(共心)으로 사니까 공식(共食)으로 인연돼서 돌아간다고요. 공식은 우리가 평소에 들이고 내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들이고 내는 것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각색으로 마음을 쓰지만 하나입니다. 하나로 들이고 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생으로 살더라도 공식으로 굴리고, 또는 공심으로 산다 하더라도 공식으로 인연이 되는 거고, 공체(共體)로 사니까 공식으로 드는 겁니다.

공식으로 들고나고 굴리는 데에 있는

> 나뭇가지·잎새 붙들고
> 늘어지지 말고
> 오직 자기 뿌리를
> 파고 드세요

것입니다. 둘로 보지말고 꼭 그렇게 하라 하는 뜻이죠.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까닭에 네 몸을 깨끗이 씻으려면 내 몸을 씻어야 하느니라 했겠지마는 네 몸을 깨끗이 씻는 것이 내 몸을 깨끗이 씻는 것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맑은 물이 있는데 저 맑은 물이 깨끗한 물이냐 더러운 물이냐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주 옥수 같은 깨끗한 물인데, 그것도 깨끗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찰나찰나 바뀌니깐 말이에요. 금방 구정물이 들어올는지 금방 흙물이 될는지, 우리 살림살이가 금방 깨끗하다가도 금방 흙탕물이 되고 그렇기 때문이죠.

그리고 초파일이면 모두 등불을 켜고 가족들 이름을 써서 붙이고 정성을 들인다고 하는데 내 마음의 불을 켜고, 마음의 향을 사르고 마음의 떡을 할 수 있다면, 마음의 꽃을 향기로써 공심으로서 공용으로서 공생으로서 공체로서 공식화하면서 돌아갈 수 있게끔 공양을 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 공부는 우주 천하가 다 먹고도 되남는 공부며, 뇌성벽력이 치고 비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의 불은 영원하지마는 물질로 켜는 불은 바람만 불어도 금방 꺼지게 되고 타버립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금강과 같은 마음으로써 대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도리를 밝히고 사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비바람이 치니까 등불이 다 꺼졌는데 한 여인의 불만 꺼지지 않고 밤새도록 켜져 있더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얘기하신 겁니다. 마음의 불은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꺼지지 않습니다. 방편으로 켜 놓은 건 비바람이 치면 꺼지고 말지만 마음의 불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문제입니다. 각 사찰에서도 아기 부처를 물로 씻습니다. 미래에 깨닫는다고 해서 인정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문제란 말입니다. 생각이 문제라면 손짓을 안 해도 손짓이 저절로 닿고, 말을 안 해도 말이 저절로 닿고, 인연이 닿지 않아도 인연이 저절로 닿고 그래서 공덕이 되는 거죠.

예전에 산으로 다닐 때 얘기인데 그 날이 사월 초파일이었던 모양이에요. 건너다보니 등들을 여기저기 켜 놓아서 붉게 비추고 있는데, 그걸 보고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었어요. 그런데 왜 눈물이 나느냐는 얘기예요. 저기의 거리와 여기의 거리가 어떠며 너와 나 거리가 어떠냐 이거죠. 그러고 비가 쏟아지는데도 일체제불을 갖다 넣으니깐 내 중심은 꼼짝도 안 해요. 바로 내 꼬챙이 내가 끼니깐 그렇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 살아 주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깐 나 이외에 대신 불 켜 주는 사람도 없죠.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러죠.

우리가 불 켜는 것만이 아니라 끄는 것도 켜는 것도 둘이 아니라구요. 만약에 촛불을 켰다가 끄게 되면 그 초는 남아 있듯이 끄고 켜고 하는 것이 둘이 아니게 항상 같이 돌아가게끔 돼야 되겠죠. 이 도리가 상당히 어렵지 않으면서도 어려운 거같이,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복잡한 거 같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나 복잡하지 않아요, 생활이니까. 생활을 하는 데 찰나찰나 내가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롭게 해야 되나 하는 것만 관하시면 되겠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대신 살아 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부모자식지간이라 해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요, 모두 홀로 나예요. 그러고 자기를 위해서 옆의 사람을 돕지 자기가 아니라면 옆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가 없죠. 자기로 인해서 옆에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항상 자식들도 부모와 자식간에 밝게 불을 켜주려면 관해주라고 했습니다. 둘이 아니니까, 둘이 아닌 까닭에 관해 주면 거기까지도 마음의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의 불이 들어오면, 그 마음이 오게 되면 육체는 저절로 따라 오게 되니까요. 그리고 잘되고 못되는 것도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건 아주 규정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그러지만, 그 날만 오시는 게 아니라 오늘 아닌 오늘이 영원한 오늘이면서 끈이 항상 어느 날짜라고 증명할 수도 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대사의 인연을 갖추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불을 방편으로 켜더라도 아주 정성스럽게, 돈이 없어서 정성금을 조금 냈어도 생각은 크게 할 수 있죠. 등은 요만해도 마음은 우주에 닿게끔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너무 걱정이 많아요

문 요즘 너무 답답해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까지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그만두고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막상 그렇게 하려니 제 자신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무척이나 불안합니다. 그동안 제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공백기간이 있어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구요. 모든 일에 너무 자신이 없어요. 스님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답 진짜 자기 뿌리, 뗄래야 뗄 수 없는 자기 뿌리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부처님 형상을 믿으라고 하는 건가요. 부처님의 이름을 믿으라고 하는 건가요, 허공을 믿으라고 하는 건가요.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모자라든지 잘하든지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거니까 바로 자기 뿌리를 믿고 거기에 다 놓으라는데도 불구하고 왜들 그렇게 걱정으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체가 없다고 해도, 체가 없는 속에 의식들이 자기가 어떻게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한마음으로 따라주기 때문에 생각을 잘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예를 들어 어느 회사에 직원들이 수천 수만이라 해도 어떠한 일이 생기면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의 한 생각에 직원들이 다 움죽거리게 됩니다. 그러니깐 모든 것이 다 회장님의 뜻으로 한번 결정을 해 놓는다면 모두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지요. 그렇듯이 내가 한번 과감하게 생각을 했다면 그대로 거기에 믿고 놔야만이 결정적인 결재라 이겁니다. 결재를 해서 내려야 거기서 모두 니다. 그러니까 가지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잎새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오직 자기의 뿌리를 파고 들라고 한 겁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우리가 나무들을 볼 때 뿌리에 전체가 붙어 있는데, 싹이 잘못 생각을 한다면 뿌리가 썩습니다. 뿌리가 썩으면 가지가 썩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나무들은 흙이 가렸기 때문에, 흙이 덮여서 자기 뿌리를 못 봅니다. 그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인간도 자기 뿌리를 못 보기 때문에 무명에 덮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찰나에 가려져 있고, 한 찰나에 밝아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가지 잎새 뿌리, 모든 것을 한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건 왜냐? 의식들이 자유자재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식들이 자재할 수가 없으니까 마음에서 생각하는 대로 따라서 움죽거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남을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내 몸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어떠한 잘못하는 것을 보더라도 '내가 수억 겁을 거쳐올 때 어떠한 모습은 안 됐으며, 어떠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까, 몰랐을 때의 내 모습이로구나.' 하고 둘이 아니게 생각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잘 생각해야지, 뿌리를 얘기하는데 가지를 쥐고 애를 쓴다거나 이래서는 안됩니다. 뿌리라고 하면 한 뿌리에 가지 하나 잎새 하나까지 헤아릴 수가 없게 다 붙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뿌리라는 것만 알면 가지는 저절로 알아지고 잎새도 저절로 알아집

무엇을 관해야 하나?

문 저는 지금까지 생활에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근본에서 맡긴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해결되기만을 관하였습니다. 물론 그러한 일을 해결하였을 때는 너무나 감사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이 어느 정도 정리되니 제가 무엇을 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생활을 그대로 지켜봐야 하는 건, 그리고 요즘 느끼는 건 제가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위주로 관하는 것이 진짜 주인공 공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공중에 떠 있는 기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크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진짜로 내 습을 타파하고 전체에 이익될 수 있도록 저의 인생을 살아나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참선이라는 것은 서 있으나 앉아 있으나 누워 있으나 일을 하나 항시 내 깊은 마음속에 모든 것을 일임하고 살펴보고 관찰하는 겁니다. 나한테 놓고 지켜보고 관찰하는 데서 체험을 얻고, 작든지 크든지 체험을 하면서 가는 것이 참선이에요. 앉아서 좌선을 한다고 해서 참선도 아니요, 서서 한다고 해서 참선이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 앉아서 참선을 해야지 하는 생각이 없이 하라는 겁니다. 시간을 따져서 하지말고 아무 시간이라도 무심으로 그대로, 내가 여유 있으면 아무 때라도, 또 여유가 없으면 서서라도, 일하면서도 관하는 것이 그대로 참선이에요.

그렇게 관할 때 어떠한 생각으로 앉아서 관합니까? 우리 몸뚱이, 한 혹성, 한 개체를 볼 때에 한 사람 앞에 중생들이, 수십 억 개의 중생들이 들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몸 속에 중생들이 수십 억 개의 중생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부모에게, 어머니나 아버지, 정자 난자의 뜻을 받아서 나의 영혼 위태롭게 될 때는 바로 세포의 법계에서 의식들이 나가서 마음과 마음속으로 들고남이 없이 들고나면서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 일체 만법이 다 한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한마음에서 이루어지는데 자기 마음을 자기가 정리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반면에 여러분이 된다 안된다 하고 무슨 일들이 그렇게 많고 그런지 모릅니다. 믿고 안 믿는 거는 여러분이 자기 몸뚱이가 자기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뚱이가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너무 많은, 이름도 많고, 의식도 많고, 그게 하나로 뭉쳐서 한마음으로 선장이 돼있다는 사실이며, 뿌리는 바로 그 선장과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믿지들을 못하고 그렇게 허왕지왕 하면서 업식 무명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자꾸 여러분이 마음으로 마음을 막습니까.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 것을 그렇게 애탄지탄 착이 깁니까. 지금 가다가 죽으면 어떠며, 지금 조금 덜 먹으면 어떠며, 지금 더 먹으면 어떠며, 더 살면 어떻고 덜 살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다면, 이 마음의 도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이 무엇입니까?

문 만물의 근본인 주인공은, 깨칠 근본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다는 무기공에 빠졌거나 사마외도, 심지어 악귀가 된다 해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궁극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저희의 진정한 참모습인 것입니까? 깨닫지 못했다고 해도 이미 깨달음 자체인 완전한 궁극이 저희의 주인공입니까? 어리석은 중생에게 확고하게 자세한 길을 일러주십시오.

답 주인공이란 티끌 하나 빼놓지 않고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의 자생중생들과 더불어 같이 말입니다. 사람이 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쁜 생각을 하면 안에서 의식들이 하나로 돌아가고, 좋은 생각을 하면 그대로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도 '주인공에서 일어난 거니까 주인공에서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아!' 하고 놓으라고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건히 믿고 누가 뭐래도,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한 철 살다가 가는 거, 한 철 살다가 우리가 가는 것이 걸망을 걸머지고 어디 놀러 가는 거나 같습니다. 딴 데서도 놀러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놉니다. 같이 놀다가 해가 지면 헤어져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과 마찬가집니다, 인생이. 그러니까 그렇게 잠깐 놀다 가는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노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모습이 천양지차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놀다가는 사이에 벗어나서 아주 자유인이 되세요.

작용을 해주는데, 안에서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포 하나 하나에는 우주간 법계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다, 즉 말하자면 좋은 거는 들이고 나쁜 거는 내보내고 이렇게 우리 몸뚱이가 지구의 대기권과 같이 세포 하나 하나에서 모두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가고 들어오는 거를 다 채근합니다.

그러니깐 안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을 한번 해서 내리면 결재가 된 것과 같아서 두뇌로 통신이 돼 가지고 사대로 통신이 돼서 전체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안에서는 안에 대로 결정적으로 하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에서 고장이 났을 때는 안에서 모자라는 모든 걸 채워서 보급하고, 호르몬이 모자란다면 호르몬도 채워가면서 하는 거고, 또 바깥의 일들이과 더불어 같이 삼합이 한데 합쳐지는 동시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이나 선업이 몸뚱이에 전부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생산되면 악업이든 선업이든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악업인지 선업인지 그것도 모르고 자기한테 입력이 돼서 자동적으로 하는 그것만 알지, 이것이 내가 어떻게 해서 잘못될는지 잘될는지 그것을 중생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내 줘야 그 중생들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을 주는 거와 같고 거름 주는 거와 같다고 했습니다. 내 한마음이 수십 억 마리의 그 중생들의 마음을 이끌어 가는 데에 묘미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럼 관할 때 어떻게 관해야 하나? 관할 때 제일 첫째, '내 주인공만이 참나를 발견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최고의 관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차적으로는 내 가정에, 내 몸에 어떠한 불리한 조건이 왔을 때 그것을 다시 또 관해야 합니다. 항시 빼 놓지 말고 제일차적으로 '참나를 발견하게 해 주는 것은 나의 주인공뿐이다. 주인공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평소 때에는 항시, 일하다가도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또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급한 문제가 있다면 그 급한 문제부터 관하시라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은 '당신만이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 이끌어 가지고 갈 수 있다!' 또는 어떠한 애고에 시달린다 하면 '그 애고가 있는 것도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 법정에 소송이 걸렸을 때도 그렇게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 또 내 가정에서 남편이라든가 부인이라든가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에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당신밖에 없다.' 자녀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도 '그것도 당신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 자식이라는 거하고 부모라는 거하고 바로 가설이 돼 있으니까, 모두가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우주간 법계가 하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두가 마음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바로 내 주인공만이, 우주의 근본 자체가 모두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째, 이런 공부를 할 때는 앉아서 좌선을 해야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 생각하는 데에 묘미가 있고 관찰력이 있고 바로 지혜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둘리가 터지는 겁니다. 사람이 오래도록 앉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마음을 쉬고, 아집이나 아상이나 내 교만이나 이런 거를 몽땅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버리지 않는 것만치 얻을 길이 없습니다. 죽어 가는

> 참선이라는 것
> 서 있으나 앉아 있으나
> 누워 있으나 일을 하나
> 내 깊은 마음속에 모든 것
> 일임하고 살펴보고 관찰하는 것

사람이 권세나 돈이나, 부모 또는 자식, 처자 이런 게 아랑곳 있습니까? 모두가 아랑곳없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좋다 하더라도 죽어 가는 사람에 한해서는 동구 바깥에서 인사 한마디하면 업식만 그림자처럼 따라서 갈 뿐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하더라도 방문 안에서 인사하고 고만 헤어집니다. 아무리 집이 좋다 하더라도 바로 집안에, 대문 안에서 인사하고 그만입니다. 부부지간, 자식지간이라 할지라도 그렇고, 벗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동구 바깥에서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업식은 따라 다닙니다. 또 다시 형성돼서 나올 때에 전부 부착이 돼서 이 세상에 다시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출현을 하게 돼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벅적거리고 살면서 내 주장자의 주인이 없다면 바깥에서 자꾸 세균 같은 것도 끌어들이고, 유전성 같은 것도 끌어들이고, 영계성도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그 애고를 못 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을 딱 세우고 "주인공! 당신만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어! 당신만이 바로 내 아픔도 건강하게 해서 이끌어 갈 수 있어! 당신 집 아니야? 당신 집이 썩는다면 당신마저도 설 곳이 없어!"하고 모든 길, 이 모든 길 한마음으로 통결시키고, 가는 거 잡지도 말고 오는 거 막지도 말고, 어떠한 분기가 일어나더라도 다 거기다 놓고 "분기가 일어나는 것도 당신한테서 일어나는 거니까 분기를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있는 것도 당신 아니야?"하고 거기다 맡겨 놓고 이런다면 몸의 병 증세가 없어지면서 모든 것이, 이 마음을 쉬면 모두 한마음으로 작용을 해 주니까 죽어가던 세포도 다 살아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공부는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공부예요.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 공부는 해야 한다는 뜻을 잘 아셔야 하겠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자기 뿌리 믿어야

"소외된 이웃에 희망과 지혜를… 법보시 동참하세요"

소외된 이웃과 사회를 지키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는 신문과 불서 보내기 법보시 운동에 동참합시다. '현대불교' 보내기 법보시는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지혜의 눈을 뜨게 하는데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현대불교는 이런 취지로 97년 6월부터 부처님 가르침이 전달되지 쉽지 않은 군부대나 교도소, 병원, 복지 시설 등에 '신문 보내기 법보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구좌 1천원으로 동참하는 신문법보시 운동은 동참 시주자에게는 보시 공덕 가운데 으뜸인 법보시 공덕을 짓게 하고, 시혜자에게는 귀한 부처님의 법을 만나는 인연공덕을 짓게 할 것입니다.

'길을 묻는 이에게' 읽으며 배운것 나누고 싶어 동참

저는 현대불교 애독자입니다. 특히 '길을 묻는 이에게'를 꼬박꼬박 읽으며 마음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공부를 하면서 너무나 좋은 부처님 말씀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돼 많은 사람들과 이를 나누고 싶어 법보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현대불교를 통해 부처님 말씀이 널리 퍼져 모든 사람들이 지혜의 눈을 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박은미(bdbanya@hanmir.com)

재소자 신행수기 읽고 작은 정성 법보시 결심

교도소에서 현대불교를 읽고 불법을 알게 되어 참 삶의 길을 걷게 된 재소자의 신행수기를 감동적으로 읽고부터 법보시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미력하나마 저의 작은 정성이 불법 공부를 하는 많은 분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대불교가 앞으로도 계속 부처님의 손발이 되어 온누리에 정법을 전할 수 있기를 한마음으로 발원합니다.

최학우(chw65@hanmail.net)

큰스님들 법문 매주 숙독 고통받는 이들에 감로수

현대불교를 통해 믿음을 다지고 큰스님들의 법문을 듣는 즐거움을 매주 만끽하고 있는 독자입니다. 큰스님들의 법문이 삶의 고통 속에서 힘겨워하는 분들에게 감로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법보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읽으시는 분들 마음마다 사랑과 행복의 꽃이 피어나기를 발원합니다.

장성윤(okq2000@yahoo.com)

신도들의 현위치 재점검 타종단에 많이 배포되길

매달 법보시를 하고 있는 불자입니다. 저는 대행스님 가르침을 담은 현대불교가 기복에 맹신하는 많은 신도들이 제 자리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다른 종단과 종파의 불자들에게도 많이 배포되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또 현대불교 독자 여러분들이 법보시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정규열(vastsky@hanmaum.org)

군부대 · 교도소 · 장애인 단체 등 시설에
현대불교 매주 1천5백부씩 총 34만 7천부 발송



◇순간의 잘못으로 죄를 지은 재소자들이 법보시로 보내온 현대불교를 통해 부처님 말씀을 배우며 스스로를 참회하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고 있다. 사진은 법회를 보고 있는 재소자들.

불서 법보시 합시다

현대불교신문은 법보시와 더불어 도서 법보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그동안 불서가 필요한 단체에 자체적으로 도서 법보시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도서 법보시를 정기적으로 확대하여 불서가 필요한 단체에 고루 부처님의 법음이 전달되도록 진행하려 합니다.

이에 도서 법보시에 동참하고자 하는 불자 및 단체의 참여와 받아보시기를 원하는 단체의 접수를 받고자 합니다.

▶ **도서 법보시 동참자 모집**: 개인 및 단체가 보관중인 불서의 보시를 원하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소중한 곳에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 **불서가 필요하신 단체 접수**: 부처님의 말씀이 필요한 단체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연락처**: 책방 여시 아문 대표 02)737-0695 팩스 02)737-0696

1구좌 1천원으로 자비와 지혜의 법등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소외된 이웃과 우리 사회를 지켜 가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고자 군부대, 교도소, 양로원, 고아원, 병원 및 사회 복지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 불국토를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월 1천 5백여 법보시 후원자가 동참하여 매주 1,455부의 신문이 군장병 교도소 수행자 등 개개인 앞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4만7천 여부의 신문이 포교사 기능을 효율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보시는 일시적이지만 법보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무한한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에서 이르시기를 "사구게 하나라도 남에게 일러주는 공덕은 삼천 대천 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의 재보로써 보시한 공덕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 **법보시 후원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법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자동이체는 고객부로 전화 신청하시고,
온라인 입금은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법보시 후원 계좌번호**(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006-01-0783-830	농 협	053-01-236053	신한은행	324-05-007450
외환은행	150-13-12902-6	뱅크라인	50-01-124050	서울은행	15501-2269115
제일은행	100-20-560799	조흥은행	390-01-056471	하나은행	111-216474-00104
한미은행	100-51057-249	주택은행	504537-01-000064	평화은행	052-25-0001-512
한빛은행	082-090001-13-701	기업은행	024-022451-04-012		

■ **법보시 후원금 문의 및 안내**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737-8881(대표) 02)737-0090(직통) 팩스 02)737-0697

◉법보시 받는 단체 · 시설

구	분	발 송 처	보시 부수	보시 부수 누계
군부대	군법당	392	441	65,118
	국군병원	9	11	9,222
교화기관	교도소, 교정청	35	207	45,124
	구치소, 감호소	12	43	16,876
	소년원, 감별소	14	42	6,672
복지단체	양로원	25	25	5,876
	아동복지시설	26	26	9,366
	장애인복지시설	11	11	4,066
	청소년복지시설	16	16	5,682
	사회복지기관	148	148	49,058
	불교병원	9	61	15,637
경찰	경승실	190	190	57,308
	경찰병원	2	6	1,416
지정법보시	단체	146	168	35,397
	개인	60	60	20,620
총계		1,095	1,455	347,442

현대불교 법보시 후원기관 · 후원자

간종흠 강갑순 강경준 강대덕행 강덕순 강말숙 강미영 강민정 강병현 강복복지관 강성욱 강수천 강숙희 강순영 강신옥 강신태 강영신 강옥구 강용희 강유미 강은숙 강은영 강인성 강인숙 강정옥 강정기 강정숙 강정희 강정훈 강종남 강지숙 강춘계 강태근 강태복 강현화 강현숙 강환진 경정 경남지원 경순자 고계환 고광진 고덕현 고순진 고영배 고영이 고옥영 고용순 고은주 고재선 고희선 고현서 공덕화 공봉근 곽미영 곽영호 구긴자 구분주 구영란 구은지 구진모 구진희 구진희 국민회 권갑남 권계순 권동희 권두상 권명수 권명희 권미경 권복연 권복자 권복현 권성행 권순 권순병 권순혁 권연지 권영상 권영숙 권영현 권오석 권오윤 권오진 권옥숙 권옥순 권은주 권은경 권정숙 권진순 권차순 권초자 권태순 기현정 김가영 김갑순 김경선 김경수 김경숙 김경숙 김경순 김경애 김경옥 김경자 김경희 김계순 김계자 김계화 김고은 김관중 김관희 김광남 김광덕 김광순 김광태 김교안 김국중 김규남 김규리 김규정 김근상 김근영 김금순 김기성 김기춘 김길복 김길순 김나랑 김남경 김남석 김남숙 김남영 김남순 김남현 김남희 김남희 김노경 김노순 김노자 김노희 김노희 김능자 김다정 김다혜 김단비 김단정 김단희 김달순 김대현 김덕임 김동자 김동하 김명숙 김명순 김명자 김명자 김명자 김명희 김명희 김명희 김문자 김문종 김문주 김미란 김미명 김미선 김미순 김미연 김미옥 김미정 김미주 김미희 김민수 김민옥 김범수 김병희 김보금 김보람 김보배 김보현 김복남 김봉애 김봉주 김봉해 김상규 김상덕 김상범 김상분 김상순 김서분 김석교 김석순 김석옥 김석자 김선남 김선명 김선애 김선옥 김선희 김성경 김성덕 김성순 김성자 김성진 김성혜 김성희 김송자 김수경 김수희 김숙량 김수영 김숙희 김순경 김순남 김순덕 김순례 김순례 김순옥 김순자 김순희 김승수 김승재 김승자 김시영 김시자 김신영 김애란 김애리자 김애자 김양순 김여경 김연옥 김연정 김연주 김영순 김영옥 김예진 김영순 김영애 김영옥 김영자 김영희 김예지 김예희 김옥남 김옥순 김옥자 김옥희 김용남 김용순 김원배 김원순 김원중 김원희 김은경 김은주 김은희 김은희 김은희

조계사 청년회 25돌…12대 구재완 · 정우식 현회장 대담

"수행·실천 하나된 공동체 만들어야죠"



◇구재완 씨(왼쪽)와정우식 회장이 조계사에서 청년불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초창기보다 참가회원 줄어 안타까움

6월 1일, 조계사청년회가 창립 25주년을 맞는다. 한국불교1번지 조계사의 청년불자들 모임인 조계사청년회 제12대 회장 구재완 씨(46 · 음악스케치 사장)와 현 정우식 회장(19대 · 35)이 창립25주년을 기념해 조계사에서 만나 청년불교 활성화를 위한 대화를 나눴다. 초창기 창립 발기인 7인 중 이학용 초대 회장은 5년 전 즘가해 지금 충북 지방의 한 토굴에서 수행정진 중이고, 나머지 역대 회장들은 개인사업 등을 하며 신행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정우식 : 청년들의 발심을 수행과 교육, 실천이 하나 되는 신행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조계사청년회는 그동안 부단한 정진을 다해왔다고 봅니다. 당시에는 어떠했는지요?

구재완 : 77년에 청년회가 창립됐을 때는 물론 제가 활동하던 80년대에는 모든 법우들이 온몸으로 뛰어다녔죠. 지금같이 이메일과 핸드폰 등 발달된 통신수단은 없었지만, 그때 활동했던 법우님들은 그야말로 '열성파' 들이었죠.

정우식 : 당시 법우들은 얼마나 법회에 동참했었나요?

구재완 : 매주 화요일 정기법회 때면 2백~3백 여명의 법우들이 모여 두 겹 세 겹으로 앉아 법담을 나누며 활발한 신행활동을 벌였죠. 그런데 최근 들어 청년불교가 침체된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정우식 : 현재 법회에 1백여 명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청년불교 침체 원인은 청년 법우들의 초발심을 신행공동체로 실현시키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신세대 법우들에 맞는 '맞춤 신행프로그램' 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청년불자로서 자부심 고취가 중요하지요.

구재완 : 청년법회 활성화를 위해, 83년부터 실시했던 '임진각 통일기원 도보 대행진' 이나 81년부터 '법우 부모님 효도관광법회' 등과 같은 행사들을 다시 시작해 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정우식 : 25년 동안 조계사청년회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구재완 : 창립초기에는 사찰 내 국한된 활동에만 머물렀지요. 그러다 80~90년대 들어 자체조직 정비 등의 과도기 단계를 거쳐 '관심의 폭' 이 넓어져 대사회적 활동에도 눈을 돌리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활동 전선에 나설 청년 법우들이 부족하지 않나 여겨집니다.

정우식 : 청년회의 조직력이 약화되고, 청년불자들이 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자기만족' 에서 '사회적 실천' 으로 청년불교의 방향성이 변해가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구재완 : '신행의 재미' 속에서 청년불자로서 '의미' 를 담아낼 수 있는 수행프로그램이 많아야 합니다.

정리=김철우 기자

영산재 봉원사서 한달간 봉행

월드컵기간중…불교문화 우수성 알릴 기회

영산재보존회(회장 인공)는 월드컵 원만성취를 위해 6월 한달동안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신촌 봉원사에서 영산재를 봉행한다. 매년 단오날을 기해 봉원사에서 봉행되는 영산재가 올해는 월드컵 개막에 맞춰 5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시연되며 31일부터 6월 28일까지는 1시간 30분동안 압축하여 공연한다.

영산재는 석가모니부처님 재세 당시 영산회상에서 많은 제자들을 앞에 두고 법화경을 설하는 장엄한 모습 그대로를 재현한 의식으로, 외국인들에게는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접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법회에는 인간문화재 일응스님을 위시 준보유자 전수교육보조자 이수자 전수자 등과 신도 등 2천여명이 동참한다. 또한 봉원사는 31일부터 6월 28일까지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영산재 관람후 전통사찰음식도 제공한다. (02)392-3008.

이경숙 기자

'자비의 전화' 가 최근 발표한 〈불교상담개발원 창립2주년 및 자비의 전화 12주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걸려온 총 상담건수가 4,924건으로 재작년 3,374건에 비해 무려 1,550건이나 증가했다. 그러나 종교문제 상담 건수는 178건에서 140건으로 38건이나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상담건수는 96년 5,479건의 총 상담건수가 2000년 3,374건에 이르기까지 줄곧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1년을 고비로 4,924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이 중 종교문제 상담 건수는 96년 521건, 97년 343건, 98년 281건, 99년 282건, 2000년 178건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비의 전화' 상담 증가세로 반전
종교문제 상담은 계속 줄어

김철우 기자

경주남산 석조문화재 풍화 심해

구조적 불안정성까지 겹쳐…보존대책 시급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남산의 석조문화재들이 심한 풍화현상과 함께 구조적 불안정성마저 안고 있어, 보존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대 이상헌 교수(지구과학부)가 경주 남산의 불상과 석탑, 마애불 등 석조문화재 10개소를 선정해 풍화와 훼손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심한 자연적 풍화에 의해 표면이 떨어져 나가거나(표면 박리) 요철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 박리는 대체로 2~4mm 두께지만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처럼 1~2cm 두께로 떨어져 나간 경우도 있다. 특히 마애석가여래좌상은 마애불면과 평행하게 발달된 절리들이 최대 20cm까지 벌어지기도 해 떨어져 나갈 위험성마저 크다고 이 교수는 밝혔다. 이 교수는 이 같은 결과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24일 개최한 '경주 남산 문화재의 종합적 검토-보존과 활용' 학술대회에 발표했다.

조사대상 문화재 가운데 창림사지 삼층석탑, 남산리 삼층석탑, 삼릉계곡 석불좌상, 미륵곡 석불좌상 등 7점은 구조적으로도 불안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교수는 "경주 남산의 경우 알칼리 성분이 많은 화강암이 대부분이라 이에 알맞은 보존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형진 기자



◇24일 발생한 화재로 전소된 서울 강남 봉은사 명부전 내부. 가운데 지장보살상과 좌우의 19구 목조좌불상이 모두 불에 탔다.

서울 봉은사 명부전 전소

1800년대 현왕탱화 등 불타…방화 · 누전조사

24일 저녁 10시경 서울 강남 봉은사 명부전에서 불이 나 30여 평의 건물이 전소됐다.

이날 불로 명부전 내에 있던 1800년대 작품인 현왕탱화와 지장탱화를 비롯해 19구의 목조 좌불상도 모두 불에 탔으며, 전소된 명부전은 1789년(정조 13년)에 중수된 건물이다.

불을 처음 목격한 도견스님은 "잠을 자다가 소나무 타는 냄새가 나와 나와 보니 명부전에서 불길이 일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건물 내에 아무도 없었고 촛불도 꺼져 있었다는 관리인의 말로 미뤄 명부전 내에 설치돼 있던 벽걸이 선풍기의 전기배선에 의한 누전으로 불이 난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부전 좌측 아래쪽이 발화지점일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에 따라 방화 여부도 함께 조사중이다.

한명우 기자

"징계권 남용 정당성 없다"

김종찬씨 불교신문 상대 승소

99년 해직된 불교신문 김종찬 전 상임논설위원의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되어 정당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14일 원고인 불교신문이 '김종찬 위원의 해임이 부당하며, 복직판결을 하라' 고 결정했던 중앙노동위의 판결에 불복 상고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기각, 원안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참가인(김종찬 위원)의 집필실적이 저조한 것은 원고 신문사 사장의 지시에 의하여 참가인에게 집필을 의뢰하지 않음에 기인된 것이므로, 업무태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위원은 복직은 물론 임금 및 상여금 등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포교책자 '나눔' 10만부 제작

500여 사찰 · 군부대 무료배포

조계종이 포교소책자 '나눔' 10만부를 제작, 500여 사찰과 군부대에 무료 배포한다. 이번에 출간된 소책자 '나눔' 은 육바라밀중 '보시바라밀' 의 의미를 다뤘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이며, 동국역경원 차차석 위원이 글을 쓴 '나눔' 은 보시의 진정한 의미와 현대적 실천가치가 무엇인가를 돌이켜 볼 수 있도록 꾸며졌다.

김원우 기자

불자의 생각

사찰수련



대부분의 불자들은 주말이나 휴가때 사찰에서 운영하는 수련프로그램에 참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0명이 동참한 붓다뉴스 설문조사에서 77명(91%)의 불자들은 참가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없다는 의견은 8명(9%)에 불과했다.

"참가의향 있다"응답 91%

만약 사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 의향이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고 싶으냐는 질문에는 44명(54%)가 참선, 23명(28%)가 예불 등 의식, 6명(7%)이 교리강좌, 5명(6%)가 절하기, 3명(4%)이 체조나 무술, 1명(1%)이 담력 · 극기훈련이라고 밝혔다.

임연태 기자

침구학 단기 연수안내

국내최초 도입된 중국의
평형침구의학 강의
새로 창안된
남정 사상 침구학 강의

한의사, 전통침구사
침구학에 관심 있으신분
대환영합니다.

질병을 치유코저 하시는 분도
연락 바랍니다.
본원장은 ○대학에 침구학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대체의학 연구원장
대체의학박사

연락전화 02)3159-8886
3158-6977
011) 722-6977

"건강을 증진하고 유지하는 지혜"
[Ge]
초에너지 칼슘(Ca++) 효소(酵素) 위력!

1 뼈와 연골(관절)을 재생시키는 능력
• 50대이후 뼈와 관절 퇴화를 막는다.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
• 효소는 이온칼슘과 합성될때 흡수력을 충족시킨다. (인체내 칼슘이용율 99%)

2 혈액을 맑은 알카리성으로 유지
• 뇌신경, 심장기능 및 혈액 흐름속도를 조절한다.
• 세포 재생능력을 돕고 피부가 청결해진다.
• 마음이 편안해진다.(심장, 뇌신경 안정)

3 소화기능 및 배설(쾌변)을 촉진
• 위기능 및 영양을 잘 흡수시킨다. (허약체질, 마른체형)
• 장기능을 증진 활성시킨다. (변비, 장염)
• 비만(기초대사를 올려라) : 월 2~3kg 감소

4 면역기능을 증가시킨다
• 에너지 합성효소는 간기능 신장기능을 신속히 개선한다.





(주)H.L.D 상담대표전화 02)499-4821~3

"코골이, 당뇨, 암, 특효"



달마사 백련스님

(코골이 연구 10년)

KBS 2002. 3. 13 토요아침 방영
MBC 1999. 8. 7 고향은 지금
경양위 제365호 특허 13629출원

오랜 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육학+음양오행+신통력+선도특수법+천지 민간
약초로 수년을 연구하신 백련스님
공기오염 자동차 매연 오염된 물 농약에 찌든 채소과일등으로
현대병이 많은 이런 분께 드리겠습니다.

1. 오랜 세월 코골이와, 비염, 축농증 고생하신 분
2. 간 복수찬데, 각종 암 생사에 허덕이시는 분
3. 만성변비, 약 드실 때만 괜찮고 재발 하신 분
4. 당뇨병으로 수년간 고생하신 분
5. 류마치스 관절염, 신경통 산후병 고생하신 분
6. 위장병 고민하신 분

이 제품은 깊은 산중에 자생하는 약초로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모든 제품에 효능을 직접 느끼십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달마사 불사에 쓰여집니다.
◉ 단위농협 813015-56-022193 정강채

TEL. 055-385-0065~6
H.P. 011-570-3357

우스이레이키(Reiki 靈氣)가 왜 화제인가!

- 3일만 배우면 됩니다 -
- 탁월한 우주 생명에너지 이용법입니다 -
- 건강 전체를 개선하는 효과적인 생명에너지입니다 -

일본의 정토진종의 구도자 우스이 미카오씨(1865~1926년)가 교오토의 산속에서 21일간의 처절한 단식명상 끝에 번개를 치듯이 올려 오는 우주생명에너지와 감응하고 그 이용법을 체계세워 레이키라고 이름지은이래 이미 레이키는 전세계 50개국 이상에 보급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부터 미국을 통해 전세계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사람을 거치다 보니 본래의 내용이 빠지고 에너지의 질에 차이가 생긴 갈래들도 도처에서 생겨 났습니다.
저(박희준)는 앞은 갈래의 레이키를 고루고루 외국에서 배웠지만 특히 일본에서 소수의 인물에게만 전해지는 우스이씨 본래의 어퍼먼트(능력전수절차) 기법과 에너지를 전수받고 더욱 개량한 끝에 3일이라는 최단기간에 우스이 레이키 제3단계 까지를 전수하는 일을 1998년 부터 우리나라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3일 교육제도는 일본, 미국의 어떤 레이키 교육기관에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1. 우스이 레이키(교육기간 3단계까지 3일, 교육비 70만원)
교육내용 : 우스이 레이키 발명법, 12지료점 치료법,
급만성질환에 대한 원격치료법, 중식를 치료법,
악물음식물중에 대한 에너지주입법, 생활의 여러방면에 걸쳐서 레이키를 활용하는 법, 박희준식 레이키 특별참나(본성 자성 불성) 활성화법 등.
▶ 3일간의 교육이 끝난 1개월후에는 1일간의 무료 추가 교육이 실시됩니다. 완전레이키&법, 차크라활성 호흡법, 간단한 제령법등을 이때 배웁니다.
2. 카루나 레이키(교육기간 2일 교육비 50만원)
카루나 레이키는 우스이 레이키를 배운분이 다음 단계로서 배우는 새로운 레이키입니다. 9종류의 氣를 요법에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교육이 끝난 1개월 후에는 카루나 레이키 제령법 등를 배웁니다.

※ 현대불교신문 독자는 우스이 레이키, 카루나 레이키 10%씩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우스이 레이키, 카루나 레이키 일괄등록 103만원

현대 생활 레이키연구회
대표 박희준 (그랜드 마스터)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eiki.co.kr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전화 : 02)720-5682, 720-5719, 팩스 : 02)720-5720
◇핸드폰 : 019-392-2557, 018-850-1680

이 땅을 감로수로 적셔주던 大刹



이 땅에 요즘 무슨 좋은 일 있는가. 오색의 봉축 연등이 온 산하를 물들이더니, 다시 손님맞이 청사초롱이 길목마다 아른거린다. 아카시아 꽃잎이 분분히 흩어지는 5월의 남한강. 휘파람새 울음소리에 청보리 줄기도 목을 빼는데, 문막교 아래에서는 목아(木芽)의 손도끼가 서른 두 마리의 목어에게 여의주 대신 축구공을 입에 물리기 위해 잔손질이 한창이다. 천하를 희롱하는 것은 용들의 몫이겠지만 굿판을 벌리는 것은 범부들의 몫일 것이다. 어디서 둥둥 북소리가 울릴 것인가. 이 땅의 모든 부정한 것들, 엉뚱한 것들 이 영험한 잔치의 공덕으로 모두가 도깨비 걸음으로 저만치 물러갈 일이다.



△거돈 · 흥법사터와 함께 여주 3대 폐사지인 법천사터 전경. 당간지주열에 개인집이 들어서 있다.

▷빼어난 조각솜씨를 자랑하는 지광국사 현묘탑비. 부도는 현재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뜰에 있다. 법천사터에서 나란히 세워질 날은 언제일까.



◇여기저기 널부러져 있는 석물들이 사찰의 예전 영화를 말해주는 듯 하다.



◇법천사터는 지금 원주시에 의해 한창 발굴중이다.



장지현의 잊혀진가람 탐험

원주 법천사터

지광국사때 중흥…고려불교 중심사찰

현묘탑·비 11세기 불교미술 걸작품

조선초 한명회등 공부, 임란중 전소

원주시 3대 폐사지 정비·발굴 한창

세상의 한 켠은 뜨겁고, 세상의 한 켠은 음험할 때, 그래서 지권(智拳)을 쥔 손가락에 맥이 풀리고, 온 몸에 신열이 느껴질 때, 타는 목마름으로 조용히 다가가고 싶은 절이 원주 땅 법천사지(法泉寺址)다. 진리(法)의 새암(泉)인 법천사. 법의 수맥은 이미 끊긴지 오래지만 그래도 그곳에 가면 축축한 법의 뿌리가 느껴진다. 한방울의 샘물이 바다가 되는 큰 이치를 여기 와서 보면 알 것이다. 충주 목, 목계 나루, 봉명산 골짜기를 흘러내린 남한강 지류들이 다시 섬강과 몸을 섞고, 여주 들을 적시며, 유장하게 천년의 아리수(阿利水)가 되어 반도의 젖줄로 굽이친다. 법천사 문패를 떼었다고 법의 샘물이 마르겠는가. 도도히 흐르는 강물은 이 나라 불자들의 불심이 어렸을때 그저 강물이 아니라 반도의 갈증을 풀어주는 감로수임을 강둑 길에 밟히는 민들레, 영경퀴, 쑥부쟁이들은 알아차리리라.

올해도 지광(智光 984~1067)국사 부도비각에 불두화(佛頭花) 꽃은 탐스럽게 피었다. 원성 땅 부론면 법천리 산 70번지. 망가진 2만여평 절터의 옛 샘터에는 오늘도 비가 내려 불두화가 함초롬히 비에 젖는다. 지광국사 현묘탑비(玄妙塔碑 국보 제59호)로 불리는 부도비는 11세기 한국불교 미술의 대표적 걸작품이라는 명성답게 화려하고 빼어나다. 부도비 조성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온갖 공력을 다 들인듯 신령스런 손맛이 곳곳에 묻어난다.

지광국사는 고려 성종 3년(984)에 원주에서 태어나 이곳 법천사에 주석하던 관웅선사에게 귀의하여 스님이 되었으며, 18세 나이에 승교사를 개창하고 유식학을 강의하여 명성을 드날렸으니 이로부터 법상종을 이끄는 단초가 되었던 것이다. 고려의 성종에서 문종에 이르는 역대 왕들은 삼중대사, 승통의 법계로 대사를 받들었으며, 강진흥도(講眞弘道), 명료돈오(明了頓悟) 등 그 법호만도 무려 10개에 이르렀다. 역대 왕들은 지광국사를 왕실로 초청해 법화경과 유식학 등의 법문을 자주 청하였고, 어가(御駕)를 함께 타고 다녔으며, 문종은 지광국사를 사자(師資)의 인연으로 추앙하며 넷째 아들을 출가시켜 그가 머물던 현화사에 보내니 그가 곧 대각국사 의천스님이다.

법천사는 본래의 사명 '법고사(法泉寺)'가 '법천사'로 바뀐 이래, 유난히 비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 그것 역시 여기서 출가하고 여기서 열반한 지광국사가 물과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광국사의 어릴적 이름은 '수몽(水夢)'이고, 관웅대사가 내린 법호 또한 '해린(海麟)'이었다. 지광의 어머니는 하천과 우물이 흘러 넘치는 꿈을 꾸고 지광을 잉태하였기에 그의 이름을 수몽이라 지었던 것이다. 지광국사는 1067년 10월 23일 이곳 법천사에서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저녁에 적멸의 길로 들어섰다. 임종을 눈앞에 둔 국사가 "바깥 날씨가 어떤가" 물으니, 제자들이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답했다. 그러자 지광국사는 곧 편안히 오른쪽으로 누워 열반에 들었던 것이다. 죽어서라도 한방울의 샘물이 되고자 했던 지광국사의 원력이야말로 이 나라 불교 정신의 법천(法泉)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광국사의 일대기를 아로새긴 현묘탑비는 지광국사 생애와 공덕만큼이나 아름다운 문장과 도타운 장식들이 고색창연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두 마리의 용이 측면을 에워싼 비신은 껍질마다 임금 왕(王)자를 새긴 돌 거북이 용의 머리로 분신한 채 남한강 물줄기를 굽어보고 있다. 돌거북은 이렇게 축축한 남은 또다시 주인을 등에 업고 어디로 떠나려는지 물갈퀴 세운 앞발을 쳐들고 미적미적 노 저을 채비를 하고 있다.

원주 일원에는 무려 100여 개의 절터들이 널려 있다. 그 절터들 역시 이곳 법천사를 비롯한 거돈 · 흥법 3대 폐사지와 함께 이 땅을 기름지게 하고자 했던 법의 샘터들이었을 것이다. 나말여초에 이 곳 섬강 일대에 집중적으로 대형 가람들이 밀집되어 있었던 것은 이 곳 중원이 삼한이 각축을 벌이던 역사의 무대였고, 반도의 중심인 한강의 발원지이며, 원종 · 지광 · 원공 · 진공 같은 걸출한 고승 대덕들의 발길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한국불교의 무수한 법의 샘구멍이 뚫렸던 이 곳 일대의 대형 사지들이 하나같이 폐허가 된 것은 이 땅위에 살다간 민초들의 삶이 그만큼 격렬했고, 법을 지키고 보듬어야할 위정자들의 안목이 또한 상대적으로 척박했기 때문이 아닐까.

신라 성덕왕 24년(725)에 창건된 법천사는 지광국사에 이르러 당대 최고의 대찰로 발전했으며, 자작고개 너머에 있는 거돈사와 함께 고려불교의 중심 사찰로 자리 매김하였다. 법천사지로 들어오는 마을 입구에는 마을의 내력을 말해주듯 수령 수백년이 넘는 느티나무가 서 있다. 그 느티나무 턱밑에는 서원이라는 안내비가 마을의 또 다른 이력을 말해주고 있다. 조선 초기에 유방선이 이곳에 머물며 유교의 강학을 하였는데, 한명회, 강효문, 서거정, 권람 등이 이곳에서 공부하였다고 한다. 법천사는 그 후 임진왜란 때 전소되어 감히 중창할 인연을 얻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법천사지가 여느 폐사지와 다르게 마음을 아리게 하는 것은 폐사지 치고는 너무도 현저하게 폐허가 된 오늘의 운명 때문일 것이다. 당간지주가 마을의 뒷쪽에 자리한 것을 보면 맨 처음 절의 출입구는 그쪽이었던 같은데, 지금은 길도 끊기고 내(川)도 메꾸어졌으니 완전히 마을의 앞뒤가 바뀌고 마을의 역사도 앞뒤가 뒤바뀐 것이다. 1천여 스님들이 거주하던 전각들이 있던 자리는 비닐하우스나 한옥들, 조립식 건물들이 대신 들어차 사지에 있을 부조물들은 민가의 절구통이나 물통으로 변신해 있다. 옛날에는 법천사에서 퍼져나간 향나무가 일대에 가득했다는데, 지금은 아산에도 잡목들뿐, 오직 향기로운 것은 그래도 법천사지를 떠나지 못하는 용머리, 광배, 연화문 대석,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는 석물들이 하나 둘 지광국사 현묘탑비 주변으로 몰려드는 것이다.

지광국사 현묘탑비와 짝을 이루고 바로 그 곁에 다정스레 서 있어야 할 부도(국보 제101호)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뜰에 옮겨져 있다. 부도비와 함께 국사가 입멸한 18년 후인 선종2년(1085)에 조성된 부도는 현묘탑이라 불리는 것으로, 부도비 못지않게 정교하고 아름답다. 이 부도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 오오사카까지 밀반출되었다가 반환된 것으로 한국전쟁을 거치며 파손된 것을 1975년에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부도의 변천사가 한국불교 미술의 변천사라면 부도의 수난사는 곧 우리 민족의 수난사이기도 하다.

법천사는 지금 원주시에 의해 복원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원주시는 중원문화권 정비사업의 하나로 법천사지 · 흥법사지 · 거돈사지 등 중원지역 3대 폐사지에 대한 역사적 성격을 규명하고 훼손된 불교 유적을 정비해 고려불교의 원형을 회복하고 당대 민중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지광, 원공, 진공 등 세 스님의 업적과 위상을 재조명한다는 방침이다. 법천사지에는 모두 37억9천6백만원을 투입해 사지정비를 시작하였다. 문화재관리국에서 나온 학예사들이 가랑비에도 아랑곳 않고 우선 발굴작업중인 사지에 금줄을 띄우고 돌멩이 하나라도 쓸고 닦기에 여념이 없다. 이제 겨우 시굴작업 중인 사역은 마을의 초입에 불과하니 농가로 둘러찬 본격적인 사지의 발굴작업은 언제까지 진행될지 막막해 보이기만 한다.

<시인 ·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다음은 정산리 거돈사터편

